

2021 **08** Vol. 374
<http://cafe.daum.net/ocdskr>

가르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cula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글, 사진 : 김영문(성령의 브루노) 신부
광주 수도원

창(窓)



창이 되자
맑고 투명한 빗방울이
마음에 머무는
깨끗한 산과 강이 보이는 창

달려서 볼 수 없고
갈려서 갈 수 없는 가슴
막아서 보호한 안전한 벽보다

늘 바라보고 머물며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 창
호르코 다가가는 마음이 되자

CONTENTS

- 02 갤러리 / 김영문(브루노) 신부
창(窓)
- 03 차례
- 04 총장 서한 / 관구 참사회 옮김
사랑하는 재속회 형제 자매님들께
- 08 수도회 역사 /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55)
- 11 웅달샘 /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하느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 12 강좌 / 이인섭(필립보네리) 신부
영적 양성의 여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1)
- 18 영성 / 신호준(마리오) 신부 옮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6)
- 23 영혼의 성 연구 / 서한규(시몬) 옮김
예수의 성녀 데레사, 영혼의 성 해설서(28)
- 28 어두운 밤 연구 / 서한규(시몬) 옮김
어두운 밤은 우리의 유일한 빛(24)
- 32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시 / 김석영(요셉) 수사
십자가 송
- 34 선교 / 서창규(알로이시오) 신부
이콘 수업
- 36 성소 / 성소 위원회
가르멜로 74-56길
- 37 회원의 글 / 이남용(안드레아)
관구 양성책임자 교육(1차)을 마치고
- 38 순례기 / 윤원조(리드비나)
18일간의 숨바꼭질(3)
- 42 회원의 글 / 박계용(도미니카)
바람의 언덕을 넘어
- 44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 박지현(요셉피나)
수학여행을 가듯이...
- 46 회원의 글 / 김순상(베로니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열 명
- 48 회원의 글 / 김성자(데레사)
하느님 감사합니다
- 50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29)
2021년 10월 영적나눔
- 52 회원의 글 / 손금원(벨라지아)
금경축을 맞이하며
- 53 비둘기
- 56 그림 단상
- 표지그림
희망(윤정순 예수의 글라라) 作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74호 (2021 8. 1) 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김형신 이냐시오 신부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전화: 010-4460-0713

카페: <http://cafe.daum.net/ocdskr>

계좌: 우리 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관구 재속회 CARMELITE ORDER

* 총장 서한 *

사랑하는 재속회 형제자매님들께

사베리오 카니스트라 신부 (Fr. Saverio Cannistra, OCD)/ 맨발 가르멜 수도회 총장
관구 참사회 옮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 3, 13-14)



2012년 인천 수도원을 방문한 사베리오 칸니스트라 가르멜 총장님과 당시 통역을 맡은
현 관구장 김형신 이냐시오 신부님 (인천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와의 만남)

우리는 2015-2021년까지 기쁨과 고난과 많은 희망으로 채워졌던 6년 회기의 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총회를 앞두고, 우리가 경험하고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기도와 연대로 지지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병을 앓거나, 가족과 친구들을 잃어 힘들어 하시거나, 고통 받는 모든 분들께 기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은

총과 충실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 지난 6년 동안 여러분들께 썼던 편지에서 저는 재속 맨발 가르멜회 회원들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측면들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고, 우리 시대가 가진 특정한 결함-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것을 "점점 희박해지다가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역사 의식"

이라고 하셨습니다(『모든 형제들』 13-14 참조)-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서 그중 몇 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6년에 재속회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2015년의 총회를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관구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중에는 재속회의 국제 참사회 설립의 가능성, 데레사적 가르멜의 카리스마 양성의 개발, 재속회와 남녀 수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개선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들은 지금도 여전히 타당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2017년에는 가르멜 재속회 사명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선교 사명(Mission)은 재속 맨발 가르멜회의 소명 안에서 본질적인 요소이고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수도회의 재속회원들과 남녀 수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증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 소명으로 주님과 우정을 나누는 영성생활을 향상시키도록 부름 받았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선익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재속 맨발 가르멜회 회원들의 정체성이 갖는 특성들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완덕의 길』 28, 8-10 참조), 세속이라는 조건 속에서 하찮은 세상 것에(sterile superficiality) 만족하려는 유혹을 극복하며 기도하고 침묵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지역 참사회와 관구 참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지역과 관구에서 형제적 돌봄이나 양성, 선교 활동(missionary witness)이 활기를 띠는 것은 이들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관구 참사회들

이 회의와 양성 모임, 기도 모임을 온라인으로 실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한계는 있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공동체의 회원들을 지원하고 동반하는 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는 사모 데레사 성녀가 교회 학자로 선포되신 지 50주년 기념일과 맨발 가르멜 재속회의 제2차 국제대회 20주년을 기념하며, 그 동안의 성과와 여러 관구들이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으로 기록된 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고 여전히 진행 중인 혼란한 상황을 통해 우리의 무력함과 약함을 극도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시편 136)는 말씀을 확신하고,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겸손과 신뢰의 자세로 희망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읍시다.

2. 다음은 재속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통계 자료입니다(2021년 5월 6일 업데이트). 서약(단순서약과 종신서약)을 한 총 회원 수는 92개국의 28,824명입니다. 법적으로 설립된 공동체가 775개이고 이외에 양성 중에 있는 341개의 공동체와 그룹들이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법적으로 설립된 공동체의 숫자는 97개입니다. 이 자료들은 등록된 재속회원의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재속회의 생명력과 효율성을 입증하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3. 저는 또한 재속 맨발 가르멜회의 여기저기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태도들에 관한 몇 가지 우려와 당혹감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특히 양극화와 급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세계가 가진 특징들 중 일부가 우리 회원들 사이에도 침투하기 시작한 것 같습

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것들을 배타주의, 대중 영합주의, 근본주의라고 부르십니다. 이런 것들이 조장된다면 "극복하였다고 여기던 구시대적인 분쟁이 고조되고... 폐쇄적이고 격화되고 격렬하고 공격적이게 됩니다."(『모든 형제들』 11). 이들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정통주의에 대한 열정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태도들은 교회 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시대의 교회를 고집하며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분쟁과 불필요한 분열을 일으키고, 당신의 제자들이 사랑과 진리 안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뜻(요한 15,17; 17,23 참조)을 반대하는 증거자가 됩니다(요한 15,17; 17,23 참조). 데레사 성녀는 이미 우리에게 "무분별한 열성"(『영혼의 성』 제 1궁방 2, 17)이 공동체를 크게 해치고, 형제적 사랑을 약화시키고 식게 한다며 그 위험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대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관심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상성(『모든 형제들』 139 참조), 온유함(『모든 형제들』 194 참조), 만남의 기술(『모든 형제들』 215 참조)로 표현됩니다. 참된 형제적 친교 관계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고, 다음과 같은 특정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서로 가까이 다가가기, 서로 표현하기, 서로 귀 기울이기, 서로 바라보기, 서로 알아가기,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공감대 찾기, 이 모든 것이 동사 '대화하다'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모든 형제들』 198 참조).

또 다른 문제는 교도권(교회와 주교들)을 존중하지 않고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비방하는 경우처럼

소셜 네트워크를 악용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 회의 일원이나 사모 데레사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자문해봅니다. 우리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현대적인 도구를 신중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상호존중이나 사랑을 잃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항상 바오로 성인의 가르침에 유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에페 4,3)

(수도회 내의)일부 지역에서의 교권주의(성직자 우선주의)로 돌아가려는 경향이나 평신도의 신분을 갖는 재속 맨발 가르멜회 회원들의 수동적인 복종도 걱정이 됩니다. 재속 맨발 가르멜회와 우리 수도회 수도자들의 바람직한 관계는 서로의 합법적인 자치권을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재속회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합법적 권위(competent authority)에 의해 승인된 규칙(회헌과 회칙)에 따라 공동체의 '통치'(government)과 '양성'(formation) 그리고 '공동체 운영'(organization of your activities)에 대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를 거스르면 안됩니다. 그건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주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상 우리는 순례하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카리스마를 공유하는 우리의 성소에서 서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함께 여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평신도로서의 성소는 세상 속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헌장 31-32; 평신도 그리스도인 15 참조).

4.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우리 수도회의 남녀 수도자 및 데레사적 가르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여정에서 어떻게 역동

적인 충실성을 견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숙고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우정을 나누는 관계에서 힘을 얻어 그 힘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사명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았습니 다. 이것은 여러분 내면에서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할 때마다 역사를 관통하는 하느님의 충실성을 결코 잊지 않으려는 믿음의 빛을 찾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근본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복음의 기쁨』 13). 우리가 몰두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내적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와 상관없고 단지 피상적일 뿐인 정보와 이미지의 물결로 넘쳐나는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원회규에 요약되어 있는 영성적 자세를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끊임없이 갱신하면서, 기억을 보존하고 희망을 간직하라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일생 동안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비록 교회와 수도회가 당면했던 문제에 몰두하셨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항상 삼위일체 하느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대한 겸손과 믿음의 관계 안에서 교회와 우리 수도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영감과 힘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여행하고 함께 일해야 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당신이 받은 카리스마에 따라(수도회를) 창립할 때 수도자들과 평신도들 사이에서 도와줄 협력자를 찾으셨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수도회의 모든 회원들은 적극적이고 성숙한 참여로(를 통해) 각자가 속한 가르멜 공동체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각 분야에서 공동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방적이고 유순한 자세로

양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희망을 품고 "사랑으로 행동하는"(갈라 5, 6) 구체적인 믿음, 일상에서 구현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셨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믿음 안에서, 삶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추구하는 태도를 갖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양성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우리 수도회 성인들 작품을 평신도 소명의 관점에서 체화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비추시어 오늘날의 교회와 세계에서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을 충만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그분의 배필이자 세계 교회의 수호자이며 또한 우리 수도회의 가장 관대한 보호자이신 성 요셉께서 여러분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축복해주시기를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1. 5. 24.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
로마에서.

맨발 가르멜 수도회 총장
사베리오 카니스트라 신부
(Fr. Saverio Cannistra, OCD)

* 수도회 역사 *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55)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수도원

1. 스페인에서 수도회의 재설립(계속)

1.3. 성녀 데레사의 마누엘(1817-1889)

그는 1817년 스페인 북부의 라스카노(기푸스코아)에서 태어났다. 15살이 되던 해에 가르멜 수도원에 입회해서 착복을 했다. 그러나 철학, 신학을 공부하던 시기인 1839년에 수도원들이 폐쇄됨과 동시에 강제로 봉쇄해제 되는 삶을 살아야 했다. 당시 22살이던 그는 가르멜 성소를 포기하지 않고 고국을 떠나 프랑스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수도회의 복원을 위해 헌신했다. 1867년 아쟁 가르멜 수도원 원장을 역임했다.

2. 맨발 가르멜의 재정착(마르키나, 1868)

앞서 우리는 보르도 가르멜의 원장인 예수 마리아의 베드로 요셉 신부와 함께 맨발 가르멜의 복원에 대해 간략히 다룬 바 있다. 보르도에서 비야프랑카의 백작인 그의 아버지를 위한 가이탄 아얄라(Gaitan Ayala)의 편지를 얻게 된다. 성녀 데레사의 마누엘 신부는 자신의 고향에 도착해서, 오래전에 수련자들로 가득 찼지만, 지금은 비어 있는 수도원을 바라보며, 프랑스에서 수도원들을 성소자로 가득 채웠던 일을 스페인에서도 이루려는 열망으로 불타올랐다. 조카들을 자기 아버지 곁에 둔 다음, 그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일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빅토리아의 문호(文豪)인 비첸테 만테롤라를 만났는데, 여기에는 그의 동료인 비야프랑카의 백작도 함께

했다.

이 만남 이후, 그는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알칼라 데 에나레스(Alcala de Henares)에 머물고 있는 사도좌 대리자인 토마스 데 아퀴노 말도나도(Tomas de Aquino Maldonado) 신부를 방문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는 사도좌 대리자를 찾아가 라스카노(Lazcano)에 있는 버려진 가르멜 수도원에 해외 선교를 위한 콜레지오를 개원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안하게 된다. 그러나 사도좌 대리자가 보기에 이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는 사라져버린 가르멜 수도회를 단순히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누엘 신부가 이태리 가르멜 총장인 성 요셉의 도밍고 신부의 이름으로 이 창립을 이루기 위한 공식적인 청원을 주지사에게 요청하자, 말도나도 신부는 이 일에 개입해서 이태리 가르멜의 총장은 주지사에게 문서를 제시한 가운데, 클레멘스 8세의 칙서인 『In apostolicae dignitatis culmine』로 인해 스페인 영토 내에 수도원을 창립할 수 없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성 요셉의 도밍고 총장 신부는 성청으로부터 이 칙서에 대한 폐지를 얻어냄으로써 이 난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일이 성사되기 바로 직전, 그 수도원의 주인인 발메디아노(Valmediano)의 백작이 수사들이 그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 당시 마르키나 시청은 자기 영내에 있는 이 수도원을 수사들에게 양도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 1868년 8월 3일 해외부(海外部)는 도밍고

신부에게 마르키나에 쿠바 선교를 위한 콜레지오를 설립하도록 허락했다. 같은 달 14일 이태리 가르멜의 총장 신부는 직접 마르키나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주재하는 가운데 수도원을 인수했다. 이 공동체는 설립된 그달부터 새로운 성소자들이 입회해서 양성을 받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869년 11월 8일 8명의 수련자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착복을 했다. 이 수도원의 가르멜 회원들은 스페인 정부에 의해 폐쇄된 옛 스페인 맨발 가르멜 회원들로 불리질 않았다. 이들은 교회법적으로 이태리 맨발 가르멜 소속이었다. 마르키나 수도원의 원장은 예수 마리아의 베드로 요셉 신부였으며, 수련장은 성녀 데레사의 마누엘 신부였다. 이 두 장상에 더해 프랑스의 아비뇽 아키텐 관구에서 파견된 8명(이들 역시 모두 스페인 사람들이었다)의 회원들이 함께 수도 공동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이태리 맨발 가르멜의 회헌과 예수 마리아의 후안 신부에 의해 작성된 『수련자 규범』(Instructio Noviciorum)에 따라 살았다. 이 수도원은 교회법적인 측면이나 영성적인 측면에서 스페인 맨발 가르멜과 어떠한 연결 고리도 없었다.

2.1. 맨발 가르멜의 통일

마르키나 수도원의 설립 역사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 즉, 스페인 맨발 가르멜과 이태리 맨발 가르멜이라는 두 개의 교회법적 존재가 그것이다. 마르키나 수도원은 스페인의 영토 내에 창립되었다. 하지만, 이 수도원은 교회법적인 면에서 교황의 권위에 의해 이태리 맨발 가르멜에 의존된 상태에서 창립되었다. 이 수도원 창립의 주역인 성 요셉의 도밍고 신부가 세상을 떠난 후, 스페인 영토 내에 또 다른 수도원들을 창립하려 했을 때, 이런 교회법적



마르키나 수도원

인 장애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러나 로마의 새로운 장상 신부들은 마르키나를 모원으로 새로운 수도원들을 창립하는 데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른 한편, 마르키나 수도원에는 성소자들이 몰려들었다. 새로운 수도원 창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당시 40명의 수도자들이 있었으며, 계속해서 몰려드는 젊은 성소자들을 적절하게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도원을 더 창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베드로 요셉 신부는 부르고스, 아빌라를 비롯해 여러 곳에 새로운 수도원을 창립하기 위해 허락을 청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느꼈다. 이를 위해서는 로마의 장상들이 몇 가지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더욱이, 마르키나 수도원의 수사들은 데레사적 카리스마로 설립된 맨발 가르멜 수도회들이 통합되기 전까지는 온전히 수도회의 복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1874년 5월 30일, 이태리 맨발 가르멜에 속해 있던 마르키나 공동체는 이 창립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당시 교황인 비오 9세에게 보고했다. 이 공동체의 수사들은 여러 주교들, 특히 보르도의 주교, 세오데우르겔의 주교의 권위에 의존하는 가운데, 수도원의 확장을 위해 비오 9세에게 기존에 흔적만 남아있던 스페인 맨발 가르멜을 완전히 폐쇄하도록 청했다.

수도회 폐쇄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는 마

르키나 공동체 원장인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미겔(Miguel de la Santisima Trinidad) 신부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 문서에는 수련장인 성녀 데레사의 마누엘 신부를 비롯해 예수 마리아의 베드로 요셉 신부,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의 요한 신부, 예수 마리아의 토마스 신부, 아기 예수의 라파엘 신부가 서명했다.

이태리 맨발 가르멜의 수석 부총장인 무염시태의 마르틴 신부는 당시 총장이던 십자가의 성 요한의 루카스 신부와 총대리인 무염시태의 예로니모 신부에게 창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했으며, 1874년 8월 16일 이를 광범위한 문서로 작성했다. 그리고 이를 교황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교황은 칙서 「Lectissimas Christi turmas」(1875년 2월 12일)를 공포함으로써 이를 허락했다. 이 문서는 스페인 내에서 이태리 맨발 가르멜 소속 수도원들의 지속적인 창립에 대한 승인과 더불어 두 수도회(이태리 맨발 가르멜, 스페인 맨발 가르멜) 간의 통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 이는 통합이라기보다 이태리 맨발 가르멜에 의한 스페인 맨발 가르멜의 흡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태리 맨발 가르멜 측에서는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흩어져버린 스페인 맨발 가르멜 소속 약 500명의 회원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몇몇 수도원(라레아, 부르고스, 아빌라, 세고비아, 라스팔마스)에서 가르멜 성소를 살아내고 있었다. 이들은 당시 일어나고 있던 통합의 시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따라서, 비록 교황 칙서에 의해 통합은 시작됐지만, 실제로 흩어져 살던 스페인 맨발 가르멜 회원들이 이 통합에 합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교황 칙서 「Lectissimas Christi turmas」의 서두에는 교황 클레멘스 8세의 칙서 「Apostolicae

Dignitatis culmine」로 인해 맨발 가르멜이 두 개의 수도회로 갈라지게 된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 1) 이태리 맨발 가르멜과 스페인 맨발 가르멜은 로마에 주재하는 유일한 한 명의 총장 신부 아래 하나로 통합할 것이다.
- 2) 스페인 내에서 새로운 수도원들을 창립하는 것은 새로 임명된 총장 신부의 소관이다. 또한 그에게는 교회법이 부여하는 모든 권리와 함께 흩어져 사는 스페인 맨발 가르멜 회원들을 받아들일 권한이 있다.
- 3) 스페인 내의 수련자들은 이태리 맨발 가르멜 회헌에 따라 양성 받으며 그에 따라 서원을 발할 것이다.
- 4) 폐쇄된 스페인 맨발 가르멜에서 생존한 회원들은 새로운 수도원들에서 살기 위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태리 맨발 가르멜 회헌을 따라야 한다.
- 5) 새로운 관구들을 설립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총회의 권한이다.

이에 대해, 스페인 맨발 가르멜 소속으로 잔존해 있던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반발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두 수도회 간의 통합은 기정사실이였다. 따라서 잔존해 있던 회원들은 서서히 새로 통합된 ‘맨발 가르멜 수도회’에 합류해갔다. 이들의 수는 대략 30명 정도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지하던 수도원들을 통합된 수도회에 내놓았다. 이 통합된 수도회가 146년째 이어오고 있는, 남녀 맨발 가르멜 그리고 재속회원들이 속한 맨발 가르멜 수도회(O.C.D.)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옹달샘 *

하느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 신부/ 인천 수도원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아담이 지은 죄를 일컬어 “오, 복된 탓이여!” (Oh, Felix Culpa), “너로써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라고 찬송하셨습니다. (부활 찬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로 죄와 죽음을 없애시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에페 1, 5) 천사들보다 더 높은 하느님의 지위로 올라가 ‘‘참여로서(in pateicipatione) 하느님’ 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신” (시편 8, 5) 하느님을 찬미하셨지만, 이제는 천사들이 우리를 받드는 ‘새 인간’ 으로 ‘재창조’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느님을 거스른 ‘무한한 죄’ (원죄)를 갚아 드릴 수 없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이시므로 그 ‘공로가 무한’ 하셔서 당신의 ‘피 한 방울만 가지고도’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도 남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명” (필립 2, 6-11 참조) 하심으로써 피를 다 쏟으시며, 하느님의 우리에게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어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공의(公義) 즉, ‘정의’ (正義)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므로써 성부께서는 우리 자

신이 갚아 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화’ (義化) 되는 동시에 ‘참 인간’ 이시며 ‘참 하느님’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神性)을 부여받아, 하느님께서 세우셨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우리도 인간인 동시에 ‘참여로서’ 하느님이 되는 (Deificatio)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런 변모(Transformatio)를 ‘이미’ (jam) 있었지만, ‘아직도’ (nondum) 완전한 ‘성화’ (聖化, santificatio)를 위해 죽을 때까지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1요한 4, 16)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완전하게 될 것을 바라십니다. 이 성화(聖化) 사업을 성령께서는 ‘성모마리아와 함께’, ‘성모마리아 안에서’ 이루십니다(교회헌장 8장 참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 34 ; 15, 17)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마태 5, 48)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마태 5, 44)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가 아닌 의무로 명(命) 하셨습니다.*

* 강좌 *

영적 양성의 여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1)

이인섭(십자가 성체성혈의 필립보네리) 신부/ 인천 수도권



2021년 한국관구 양성책임자 교육에서 강의 중인 이인섭 필립보네리 신부님
(정하상 교육회관)

영적 양성은 자신을 어떻게 양성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로 이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적 토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내가 몸 담아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경향이 어떻게 내가 가고자 하는 영적 양성의 여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만약 그 영향이 부정적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적 양성은 긴 과정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적 경향 중 하나는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로서, 벤딩머신이 상징적으로 이 경향을 잘 나타내 줍니다. 벤딩머신은 돈을 넣으면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내어주지요. 이런 문화적 경향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간과 노력의 투자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

하게 됩니다. 만약 나에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 올바른 장소에 가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만큼 뭔가를 투자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와 산출이 빠르고 분명하게 작동하는 문화 안에서 우리는 차츰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과정 안에서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 노력의 과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할 때, 더 그럴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경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적 경향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영적 양성의 여정을 걸어갈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가능하면 빨리 자신의 영적인 성숙이나 진보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진보를 배달해 줄 수 있는 올바른 기술, 적합한 수단, 완벽한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이때 올바른 기술, 수단, 프로그램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만큼 내가 기대한 영적인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빨리빨리 문화의 경향 안에서 내가 옳은 방법으로 기도하고, 올바른 영성 서적으로 공부하며, 올바른 영적 스승을 만나 올바른 피정에 참석하여 올바른 강의를 들을 수 있

다면, 내가 높은 영적 수준의 사람으로 새로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시시때때로 인기 강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어떤 영성이나 졸다는 기도 방법이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결과를 내기 위해 올바른 방법을 찾고, 좋은 환경을 만들며, 훌륭한 스승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어떤 기도방법, 영성, 좋은 스승 등등 자체가 투자에 대한 산출처럼 그렇게 빨리 자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늘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양성은 하나의 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각적 만족의 문화 안에서 영적 양성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영적 양성은 일생의 과정을 통해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양성을 일생의 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빨리빨리 문화 안에서 가져야 할 영적 양성에 대한 태도입니다.

과정으로서의 영적 양성은 비유적으로 육체적 성장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아기가 하룻밤에 어린아이가 되고 청소년이나 어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하느님이 마련해 놓으신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성숙하게 자란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해가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듯이 영적인 유아기 즉 초보자의 단계를 거쳐 진보자의 단계로 나아가고 이어서 완덕의 단계로 나아가갑니다.

하지만 아기가 청년으로 변하기 전에 사

춘기와 같은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거치듯, 과정으로서의 영적 양성에서도 이와 같은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는 성 요한께서 말씀하신 초보자들에게 하느님이 많은 은총을 주시고, 또 그런 하느님의 은총이 주시는 맛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 재미와 열성이 가득한 초보자들이 열성을 가지고 꾸준히 영적인 훈련을 함을 통해 영성 생활의 초반에 많이 진보한 듯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영적으로 겸손함과 절제, 꾸준함이 없으면 영적 완성을 향한 긴 여정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사춘기라는 급격한 성장의 시기 이후에는 긴 영적 정체기의 시기 즉 어둔 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련의 시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둔 밤의 시기로 다가오는 영적인 정체기를 넘기는 방법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인내와 성실한 기다림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정체기의 시기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정체기의 시기에 하느님은 우리의 의식 너머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향력과 현존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자연의 섭리 안에 당신의 손길을 감추어 놓듯이, 우리의 영적인 진보의 여정 안에 당신의 손길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영적 정체기의 기간에 하느님의 감추어진 손길이 시간을 두고 우리의 앎과 이해 너머에서 작용하시면서 우리를 더 깊은 영적 깨달음과 하느님과의 관계로 이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내가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즉각적인 만족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벤딩머신(vending machine: 자동판매기)에 돈을 넣고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하는 행동을 하느님과 그의 관계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영적인 결과가 내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거나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처음에는 하느님이라는 벤딩머신을 내 힘으로 컨트롤하거나 고쳐보려고 흔들거나 차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안되면 하느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다른 코인을 찾고 벤딩머신에 코인을 투입하듯 하느님께 그 코인을 투입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코인이란 영적 정체성의 시기 혹은 어둔 밤을 벗어나게 해 줄 새로운 기도방법, 영성, 피정 프로그램 등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영적 양성이 결과를 빨리 보려고 침묵과 어둠 속에서 것 같이 익어가듯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익어가길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어둔 밤의 시련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영적으로는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인간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현실입니다. 과정으로서 영적 성장은 모든 인간이 가야 할 여정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양성의 여정은 하느님 안에서 완성을 향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상처받으며 쓰러지고 다시 시작하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지향해 가는 일생을 바치는 기나긴 의지적인 헌신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려 애쓰는 자세

영적 양성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며, 자비로운 사람, 용서하는 사람, 세상과 타인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영적 양성을 통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중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답음으로서 영적 양성을 이야기할 때 능동적으로 내가 닮으려 하는 것과 수동적으

로 물이 들듯이 닮게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누가 영적 양성의 주도권을 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음이란 영적 양성의 과정을 가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양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닮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영적 양성에서 주도권을 하느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만약 나 스스로 영적 양성의 속도나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영적 양성의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내가 영적 양성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양성의 과정으로서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양성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변화시키시는 은총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외에 별로 없습니다.

답음과 변화를 위해 하느님께 영적 양성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관점과 부딪치는 우리의 문화적 경향은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을 좋게 바라보는 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 안에서 돈, 학식, 재능 등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능함은 세상적으로도 영성적으로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느님의 이끄심에 순응하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영적 양성이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문화적 특성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하느님께 수동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미래를 맡기고, 내가 바라는 나의 미래상이 아닌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이 양성됨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결정권과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힘들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 어드림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어둔 밤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어둔 밤은 내 의지와 계획, 뜻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섭리에 순명하는 의지의 어둔 밤입니다. 이 어둔 밤 안에서의 순명은 정체로 보여지고 메마름과 시련으로 다가오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의 수련 동기였던 한 형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수도원을 떠났습니다. 이 형제가 떠나게 된 이유는, 당시 양성담당자들이 1년간 휴학을 하면서 수도원에서 지내라고 했는데,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의 계획 안에서 자신은 휴학 없이 빨리 대학원을 가서 졸업하고 사제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1년도 늦출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결국 그 1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떠났지요. 또 한 형제는 종신서원 즈음해서 수도회에 사제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이미 이 형제의 성소를 평직으로 식별을 했지요. 수도회에서는 만약 성직을 포기하고 평직으로 살겠다면 종신서원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이 형제는 결국 떠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계획 안에서 자신의 양성과 미래를 고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들이 어떻게 양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양성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 의지대로 통제하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나를 만들어가길 원하는 사람에서, 내 삶 안에 함께하고 계신 하느님의 힘, 현존을 발견하고 하느님에 의해 양성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들꽃마을의 최영배 신부님이 신학교 때 신학교에서 쫓겨날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교수 신부님이 최 신부님께 신학교를 떠나라고 했을 때, 최영배 신부님은 “나는 하느님과 함께한다면, 지금 신학교에 있다가 사제가 되든 나가서 노가다를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암튼 이 대답 때문인지 갑자기 결정이 바뀌어서 결국 사제가 되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듯, 자신의 영적 양성의 방향, 속도, 목적에 대해서 그것이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받아들이는 순명이 바로 예수님을 닮음이라는 영적 양성입니다. 영적 양성으로서 우리의 첫 번째 닮음은 바로 십자가까지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순명을 닮는 것이죠.

닮음을 위해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역할로 존재를 규정하지 않고 존재가 역할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취, 유능함, 성공을 중시하는 문화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식과 정보를 쌓고 모아서 더 높고 더 많은 힘을 주는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쟁취하려는 문화이고 사회구조의 피라미드에서 높이 오를수록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문화 안에서는 사람들을 그들의 외적인 지위, 역할 등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경향은 이미 우리 안에서 아주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 학벌이 좋은 사람들, 돈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평가를 할 때 자연스럽게 평이 후하게 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몇 개의 페르소나(역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문화에서는 역할을 가지고 존재를 평가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가지고 존재를 평가하는 모습은 마태오 복음 4장 3절에서 악마가 예수님을 '만약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며 했던 유혹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유혹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악마에게 증명하기 위해 성령에 의한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태초로부터 성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를 굳이 악마에게 증명하시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이시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시죠. 기적은 단지 예수님의 존재로부터 유출된 능력일 뿐입니다. 그런데, 악마는 이 부차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성공과 성취를 중시하는 문화 안에서 우리는 자주 능력이나 역할로써 존재를 증명하라는 악마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혹은 타인에게 딱지를 붙이고 사람들을 높낮이가 있는 카테고리 안에 묶어 넣습니다. 이런 문화 안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역할 안에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난 이후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상실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은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평생 동안 지켜왔던 삶의 의미, 가치, 정체성, 목적 등을 주던 역할이나 능력의 상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할이 없으니 존재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존재와 역할이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존재와 역할이 뒤바뀌지 않으면, 우리 존재 자체의 소중함이 내가 하는 역할에 의해 평가

절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거리에서 청소하는 사람이거나, 강단에서 고매한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나 그들의 존엄성이 하는 일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는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뭔가 하는 것 즉 역할을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우리는 악마를 내쫓고, 치유하고 예언을 하면서…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나는 ‘모른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일이나 나의 업적이 나를 증명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로부터 우리의 역할, 일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역할이나 일은 존재의 결과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단순노동을 하든, 높은 지위에서 큰 결정을 하든 그런 역할에 우선하는 것이 존재이고, 이 존재를 먼저 바라볼 수 있고, 존재의 가치가 외적인 역할에 의해 규정되지 않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영적 양성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존재와 역할이 뒤바뀐 문화 안에서 영적 양성이 직면하는 문제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되면 갑자기 영성이 높아지고, 거룩해지며, 타인에게 엄격해지는 기이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재속회 회장이나 참사가 되면 갑자기 없던 영성도 생기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자신의 역할로 자신의 존재를 높이는

우를 범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역할 혹은 자신의 성취로써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첫째, 하느님이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꾸준히 노력을 지속하며 자신과 타인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둘째, 하느님이 그들이 원하는 때가 아닌 하느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즉 지금 부족한 자신이나 누군가도 언젠가는 하느님 안에서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셋째는 그들의 삶 안에서 어떠한 차이도 만들지 않는 순명을 어떠한 희망의 징후도 없는 곳에서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둔 밤과 같은 상황 안에서 견디기보단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영적 양성에서 우리 변화의 원천은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은총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세속적인 성취를 위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살던 사람

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 수동적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 양성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종종 실망과 반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양성 안에서 좋은 결과를 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런 결과들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 양성은 결과에 대한 습관적인 기대에서 생산적인 미래를 위해 인내로이 열린 결말로 가는 것입니다.

열린 결말을 위해 영적 양성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혹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작용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우리에게 의해 잡힐 수 있는 대상으로서 하느님을 발견하기 위해 신학적 영성적 지식이나 기도방법들을 배우고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여정은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배우고 하느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지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교육에 참석한 단위 공동체 양성책임자들(정하상 교육회관)

* 영성 *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6)

마리 보댕-크르와 지음/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번역(영어)
신호준(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옮김/ 인천 수도권

루르드 성지순례

마르탱 부인은 암으로 인한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던 상황에서 큰 딸 셋과 더불어 루르드 성지순례를 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남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만약 복되신 동정녀께서 나를 낫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난 그분께 내 아이를 치유해주시고, 그 애의 정신을 발달시켜주시고, 성녀가 되게 해주시라고 간곡히 청할 거야.”

젤리는 치유되지 않았으나, 사후에 하느님께서 자녀들을, 특히 그중에서도 네 살 반 밖에 되지 않은 막내 데레사를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루르드로부터 돌아왔다. 통찰력 있게도, 젤리는 폴린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레오니는 본성적으로 너희들 만큼이나 재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 필요한 마음을 지니고 있단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는 내 두 눈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려고 애를 쓰지. 그 애는 대체로 날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 애한테 무엇인가를 부탁하자마자, 그 애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표정이 금방 변해버리고 말지. 난 레오니가 그런 점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

는데, 느리기는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단다. 비록 여전히 그 애는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말이야.”

레오니는 자기 어머니에게 너무나도 짐작한 나머지, 심하게 앓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어머니 대신에 죽고 싶어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레오니는 그러한 지향으로 날마다 기도했으며, 심지어 그 지향으로 9일 기도까지 바쳤다.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폴린에게 써 보냈던 마지막 편지에서, 젤리는 여전히 용기 있게 다음과 같이 유머 감각을 발휘하고 있다.

목요일 아침에, 레오니는 마리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난 몸이 안 좋은데,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 것 같아. 난 죽게 될 거야.” 마리는 그 말을 듣고 웃어버리고 말았는데, 레오니는 진지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울음을 터트려버렸어. 십오 분이 지나서는 그 애 눈물이 다 말라버렸고, 변덕스럽게도 그 애는 머릿속에 다른 것들을 떠올렸지. 곧 그 앤 수를 놓은 실내화가 갖고 싶었단다. 난 레오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지만 넌 죽고 싶어 하니까, 그런 실내

화 사는 것은 돈 낭비야.” 레오니는 아무 말도 못하더구나. 의심할 여지 없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그 실내화를 오래도록 신어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말이지. 아마도 그런 희망이 그 애가 하는 기도 조건 중 하나였겠지. 그리고 레오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만 그 실내화를 신을 계획을 세웠을 테고, 그래서 앞으로 오랫동안 실내화를 신을 수 있게 될 거야!

편지들

지금까지, 나는 (저자) 마르탱 부인이 레오니의 힘겨웠던 유년 시절과 걱정스러웠던 십 대 시기를 부인 자신의 말로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적은 편지들은 정말 명확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친다. 다시 말해 그 편지들은 멋진 센스와 단순함으로 가족 분위기를 포착하고 있으며, 군데군데 유머도 포함되어 있다. 젤리의 어머니다운 다정함과 희망, 걱정거리들이 흘러넘치는 그런 편지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이다. 19세기에는 전화가 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행운이라 하겠다. 만약 그 시대에 전화가 발명되었다면, 그러한 편지라고 하는 보화를 이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요즈음, 전화로 쉽고 빠르게 소통한다는 것은 함께 나누는 내밀한 말들이 말을 하자마자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집 안에서 침묵 가운데 천천히 써내려간 편지들을 통해서 과거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마르탱 부인이 적은 수많은 편지들 이외에도, 폴린이 보낸 343통의 편지, 마리

가 보낸 444통, 셀린이 보낸 307통, 데레사가 보낸 12통이 레오니를 수신인으로 하는 서신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본다면, 레오니는 1941년에 임종을 맞이하기 전까지 자기 언니들과 동생들로부터 천 통 이상의 편지를 받은 셈이다. 레오니가 쓴 편지의 경우, 칸의 방문회 수녀원에 마지막으로 입회했던 때부터 1941년 사이에 리지와 가르멜 수녀원의 언니와 동생 수녀들에게 적어 보냈던 340통의 편지가 문서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마르탱 씨의 경우, 다른 많은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가족 간의 서신 왕래를 자기 부인에게 일임했다. 왜냐하면 그가 젤리의 솔직하고 활발한 스타일을 알고서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젤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 마르탱 씨는 자기 딸들과 거의 떨어져 지내지 않았다. 그런 연유로 그는 가르멜 수녀원을 자주 방문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폴린과 게랭 부부에게 써 보냈던 젤리의 편지들은, 바로 레오니가 병약한 아기였을 때부터 꾸밈이 없는 열네 살이었던 1877년 8월 마르탱 부인의 임종 때까지, 그 가정의 작은 우주를 조명하는 빛의 섬광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당혹스럽게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다소 뒤쳐진 데다, 천성적으로 똑똑하고 신체적으로도 예쁜 언니 동생들과 너무 두드러지게 대조되는 바람에 그녀를 끔찍하게도 걱정스럽게 만들었던 못난 얼굴과 두드러진 턱을 지닌 레오니가 없었더라면, 그 가정의 삶은 평화스러우면서 고요했을 것이다.

레오니가 좀 더 상냥해지다

혈기왕성한 데다가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격한 성향이었던 레오니는 느리게나마 한층 더 상냥해졌다. 다시 말해 다소 거칠었던 그녀가 부드러워진 것이다. 마르탱 부인이 적었던 마지막 글 몇 줄 가운데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을 통해 미래에 대한 그녀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다. “레오니는 하느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겠고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니 모친은 고통 한가운데서조차 어떤 불안감을 느꼈으며, 그런 불안한 마음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했다. “만약 내가 죽는 것을 유감스러워한다면, 그건 오로지 레오니 때문일 거야.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없을 때 누가 그 애를 돌봐줄까? (그 애) 아버지는, 비록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날 대신할 수 없을 거야. 누가 어머니처럼 그 애를 사랑해줄까?” 마리는 다음과 같이 자기 어머니의 고뇌에 찬 물음에 곧바로 그러면서도 아량 있게 대답했다. “제가 할게요, 엄마. 제가 할 거라고 엄마에게 약속해요.”

아버지와 동생들 도움으로, 마리는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켰다. 심지어 반항하는 본성으로 회개하겠다고 했던 맹세들이 종종 지켜지지 않은 채 그냥 지나쳐 버릴 때조차도, 마리는 레오니에게 강요하거나 혹은 억압하거나 하지 않으면서, 자기 동생이 즐겁게 확신을 가지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꽃 피우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레오니 이모인 마리 도시페 수녀가 다음과 같이 적었던 것이 옳았다. “나와 함께 머물렀던 짧은 시간 동안, 레오니는 나에게 자기 앞날에 대해 커다란 희망을

제공해 주었던다. 그 애는 양육하기 어려운 아이이고, 어린 시절이 절대로 유쾌하지 않을 그런 아이이지. 하지만 결국 그 애 자기 언니와 동생들만큼이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아이가 될 거라고 난 믿는다. 그 작은 것이 어느 정도 분별력이 어지고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그 어떤 것도 그 애를 멈추지 못하겠지. 간단히 말해, 그 애 강하면서도 아량이 있는 본성을 지니고 있단다. 전부 내 마음에 들지. 하지만 하느님 은총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젤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 또한 마리 도시페 수녀였다. “난 언젠가 레오니가 방문회 수녀가 될 거라고 믿지 않을 수 없구나.”

마르탱 부인의 죽음

계속해서 마르탱 부인의 암이 전이되었다. 그녀는 양팔과 목, 머리의 심한 통증으로 인해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양쪽 다리가 부어올랐으며, 출혈로 인해 기력이 쇠했다. 1877년 8월 16일, 그녀는 게렝 부부에게 다음과 같이 몇 줄의 글을 흘려 적었다. 그 몇 줄의 글이 마르탱 부인의 마지막 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마지막 글에는 젤리의 깊이 있는 믿음이 요약되어 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만약 복되신 동정녀께서 나를 치유해주지 않으신다면, 내 시간이 다 끝나버린 것이고, 하느님께선 내가 지상이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어딘가에서 휴식을 취하기를 바라신다는 뜻이겠지.”

1877년 8월 28일 이른 시각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아침에 마르탱씨는 딸들이 둘러싼 가운데 눈물을 글썽이며 양팔

에 네 살 반 된 데레사를 안고서 자기 부인의 주검이 안치된 침상으로 데리고 갔다. 나중에, 데레사는 『한 영혼 이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할 것이다. “한 마디도 없이 난 사랑하는 어머니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알랑송의 생 블레즈 가에 위치한 저택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 마르탱 집안의 아이들이 변함없이 사랑이 깃든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게렝 집안 가까이에 머물 목적으로 오른 지방을 떠나 인접한 칼바도스 지역에 위치한 리지외로 향했던 것이다. 두 집안 사이의 친밀한 유대가 강화되었으며, 마르탱 집안의 어린 외사촌들인 잔과 마리 게렝은 마르탱 집안과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가 되었다.

2. 리지외

르 뷔소네

르 뷔소네는 리지외 언덕에 위치한 정원으로 둘러싸인 사랑스러운 저택이다. 바로 이곳, 데레사가 “내 어린 시절의 다정다감했던 요람” 이라고 불렀던 집에, 마르탱 가족은 그들의 소중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것이다. 1877년 11월 15일, 게렝씨는 자기 조카들을 알랑송에서부터 리지외까지 데리고 왔다. 왜냐하면 마르탱 씨가 모든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며칠간 남아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마리는 자기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다.

저흰 르 뷔소네에 정착하는 중이에요. 그 저택은 셸린과 데레사가 늘

수 있는 커다란 정원이 딸린 사랑스럽고 쾌적한 곳이고요…… 제 생각에 아빠는 이곳에서 아빠의 작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 행복해 하실 거예요.

이모가 저희를 초대해서 내일 오후에 이모네 집에 가기로 했어요. 이모는 차에 곁들이는 사과파이를 만들어 주시기로 했고요. 어린 동생들은 외사촌 아이들과 함께 놀 생각에 정말 기뻐했어요. 특히 레오니가 무척이나 즐거워했고요. 아빤 레오니가 최근에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셨나요? 그런 점은 삼촌과 이모가 이미 언급하셨겠지만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저를 위해 그런 은총을 얻어주셨다고 전 확신해요. 그리고 전 어느 날엔가는 우리 레오니가 저희를 아주 행복하게 해 줄 거라 믿고 있고요.

노트르담 뒤 프레에서의 기숙사 생활

1878년 1월에 레오니는 리지외에 위치한, 베네딕도 수녀회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학교인 노트르담 뒤 프레에 기숙생으로 입학했다. 셸린은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반절만 기숙생으로서 매일 저녁마다 르 뷔소네로 귀가했다. 반면에 레오니는 쉬는 날에만 집에 돌아왔다. 말언니 둘인 마리와 폴린은 집에 머무르면서 집안 살림을 하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았다.

나중에 폴린이 리지외 가르멜 수녀원에서 예수의 아녜스 원장이 되었을 때, 데레사에게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글을 적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렇게 회상하는 글에서, 데레사는 자기 언니들을 종종 언급하

고 있다. 데레사의 “둘째 엄마” 였던 폴린은 데레사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의 회상하는 글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 데레사는 또한 대모로서 막내 동생을 것처럼 변함없이 다정하게 돌보아 주었던 마리에 관해서도 글을 적고 있다. 그리고 놀이 상대이자 비밀친구였던 셸린에 대해서도. 하지만 그 젊은 가르멜 수녀(데레사 성녀)는 레오니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1881년 10월 1일에 데레사가 바로 막 입학했던 노트르담 뒤 프레(기숙학교)를 레오니가 떠났다고 언급했던 것을 제외하고 말이다.

르 뷔 소네에서 셸린과 데레사는 방 하나를 공유했다. 그래서 다른 방을 함께 사용했던 마리와 폴린이 그랬던 것처럼, 둘은 서로 잡담을 나눌 수 있었다. 레오니는 작은 방에서 혼자 지냈다. 이런 일은 여러 가정에서 일어난다. 곧 아이들은 짝을 이루어 자기들의 비밀을 공유하는데, 만약 아이들 수가 홀수라면, 한 아이는 따로 떨어져 있게 된다. 그런 연유로 레오니가 혼자 있으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다.

그처럼 어린 은수자는 자기 방 안에서 은둔하는 생활을 했다. 너무 은둔생활을 하기에 언니와 동생들은 레오니를 놀려 주었는데, (방에서) 함께 지내는 동료도 없었으므로 레오니가 자주 낮 시간에 잠을 자버렸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에 장난기 있었던 언니와 동생들이 몰래 레오니 방에다가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걸어두었다. “밖에 나가 놀지도 않는 사람들, 환한 대낮에 자고 있대요!” 맞는 말이었다. 왜냐하면 거친 성격에다가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레오니는 상아빛 요새 속에 움츠려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레오니는 다소 슬퍼하면서 자

신이 “마음의 외로움” 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글을 적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당시에 두 명의 어린 동생들은 두 명의 언니들을 자기들의 “작은 어머니” 로 삼았다. 셸린은 마리를 선택했으며, 데레사는 폴린을 선택했다. 오직 레오니만 (선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레오니는 절대로 자기 언니와 동생들을 질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똑같이 다정한 마음으로 사랑했다. 1882년 1월 1일 레오니는 폴린에게 새해 축하 인사말을 써 보내면서 상본 뒷면에다가 (백 년이 훨씬 지난 후인 지금은 세월과 더불어 색이 누렇게 변했지만)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위대한 성인의 전구로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폴린에게 은총과 축복을 흠뻑 내려주소서. 언니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작은 동생이 언니에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런 소망을 담아 보내.”

상본 다른 면의 “위대한 성인” 은 다름 아닌 프란치스코 드 살이다. 그분은 온화한 성인으로서 레오니가 18살 때 이미 따르고 싶어 했던 것처럼 보인다.

(다음 호에 계속)

* 영혼의 성 연구 *

예수의 성녀 데레사, 영혼의 성 해설서(28)

키에란 카바나프, O.C.D./ 캐롤 리시, O.C.D.S. 지음
서한규(하느님 신비의 시몬) 옮김/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제 7 궁방

제4장

은혜를 내리실 때 우리 주님의 목적

1. (1-2항) 앞서 언급했던 영적 혼인의 합일의 효과들은 이러한 영혼들 안에, 대체적으로 존재하지만,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데레사는 설명한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개인들을 하루나 며칠 동안 그 본성적 상태에 두시고 그들은 혼란을 경험한다. 이러한 혼란이 일어날 때, 그 영혼이 큰 안정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주님을 벗어나지 않고 섬기겠다는 커다란 결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주님의 현존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감사하게 된다. 그러한 혼란이 드물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자신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잊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기를 바라시며, 또한 그 영혼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존께 빛을 졌으며, 당신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신다.

2. (3항) 데레사는 우리가 이 영혼들이 불완전과 소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죄들과 불완전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대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죄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영혼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들을 지었음 것이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한 다른 영혼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고통을 받는다. 우리는 결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장 커다란 안전은 우리가 주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3. (4-6항) 하느님의 가장 커다란 은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본뜨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데레사는 믿었다. 하느님의 은혜와 기쁨들은 우리의 나약함을 강하게 해 주시어 커다란 고통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뜨는 것이라고 그녀는 적는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은 가장 커다란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라고 그녀는 언급한다. 기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시련들과 관상이 상상력이나 악마의 속임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이다. 기도와 영적 혼인의 목적은 이것을 위한 것이고, 거기에서 선행들이 생겨난다.

4. (7-8항) 여기에서 데레사는 그녀가 쓰고 있는 주제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 같다. 처음에 데레사는 우리가 우리의 결심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신심 행위를 하고 하느님을 섬길 때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도 유익함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두 번째 생각에서 그녀는 약간의 유익함을 알았다. 하느님과 관계가 있는 모든 것은 크게 유용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겹쟁이들의 뜻과 반대되는 시련들을 주시고 그들에게 유익함을 이끌

어내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데레사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결심은 가치가 없지 않다고 해도,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한 것을 따를 때와 비교하면 거의 유익함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녀의 고찰을 끝맺음한다. 그녀는 한 번에 모두 이룰 수 없는 것은 조금씩 이룰 수 있다고 격려한다. 행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데레사는 그녀 시대의 문화로부터 비유를 사용한다. 참으로 영성적인 사람이 되려면 하느님의 종, 십자가의 낙인이 찍힌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녀는 말한다. 이 비유를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그러한 영혼들을 당신께서 하신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 팔아넘기실 수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수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면서 모든 이들의 종이 되라고 충고한다. 영성 생활의 토대는 기도와 관상 이상의 것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는 덕을 얻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성 생활에서 자라는 대신에 줄어들 것이다.

5. (10-13항) 데레사는 계속해서 섬기는 주제를 다룬다. 내적 평온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외적 평온을 덜 가지게 한다. 그 영혼은 이제 중심으로부터 전쟁을 벌이고, 기능들과 감각들과 모든 육체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이전의 시련들은, 그때에는 영성 생활에서 유익한 것으로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도구였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여기에서 내적으로 그분(거룩한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은 전에 없이 더 큰 힘을 준다. 그녀는 수녀들에게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한다. 다시 마리아와 마르타의 사례로 돌아와서, 데레사는 기도와 봉사 모두 필수적

인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6. (14-16항) 데레사는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이끌 마음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수녀들이 때때로 제기했음이 분명한 반대들에 대하여 대답을 한다. 우선 그녀는 때때로 악마가 목전에 있는 일들을 경시하려는 커다란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고 경고한다. 가능한 일을 하는 대신에,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것에서 만족할 것이다. 기도로 우리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전 세계를 도와야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만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겸손, 금욕, 봉사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 안에 사랑의 불을 밝힐 수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일의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어떤 사랑으로 했는가를 보신다. 우리의 일들이 작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크게 되기에 합당한 가치를 지닐 것이다.

설 명

1. 주님께서는 때때로 그 영혼을 그 본성적 상태에 놓아두시는데, 그것은 다른 궁방들의 모든 독충들이 그 영혼을 공격하고 그 영혼에게 복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기껏해야 하루 정도 지속된다. 주님께서 그 영혼이 어떠한 일에서도 당신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굳건함과 선한 결심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혼들은 그들이 결코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안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불완전에 의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많은 불완전함과 소죄까지 범하겠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은 교회의 성인이므로, 하느님과 당신의 형제 자매들의 탁월한 종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 네 번째, 마지막 장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대한 데레사의 그림을 완성한다. 삼위일체적 현현, 그리스도 안으로의 완전한 결합, 모든 인간적 충만함과 성숙함에서의 인류학적 요소,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서 인류에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비지체를 세우기 위한 하느님과의 이러한 합일 속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카리스마라는 교회학적 사실을 알게 된다.

2. 작품을 끝내고 다시 꼼꼼히 읽으면서, 데레사는 그것을 장들로 나누고 각 장의 앞머리에 각각의 장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요약했다. 한 장을 나누는 좋은 곳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빨리 끝났다. 그녀는 각 장의 제목을 다른 종이에 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잃어버렸다. 운이 좋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데레사의 추종자들 중 한 명인 그라시안 신부가 이 장들의 제목을 필사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그녀는 이 마지막 장을 “주님께서 그렇게 커다란 은혜를 영혼에게 주시는 목적과 마르타와 마리아가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그녀가 생각하는 바를 설명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이 장은 매우 유익하다.” 라는 말로 소개한다.

3. 데레사에게 일어났던 일은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았다. 하느님의 조용한 계획이 있다. 그 여정의 마지막에, 인간의 영혼이 받은 모든 은혜들(하느님의 은총들) 가운데 그 결과는 틀림없이 하느님께서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실 때, 당신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계획하신 것이다. 우리는 계

획된 행동 방침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깊숙한 곳에 계시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안내하는 현존을 다루고 있다.

4. 마침내 「영혼의 성」의 마지막 궁방에서 마르타와 마리아는 함께 일한다. 베타니아의 그 두 자매는 인간 삶의 두 상징이다. 마르타는 행동을, 마리아는 관상을 나타낸다. 제6궁방에서 그 둘 사이의 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은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 이 둘 사이의 합일에 이르기 위하여 마르타와 마리아, 행동과 관상, 이 두 차원은 같은 사람 안에서 통일되어야만 한다.

5. “이 장은 매우 유익하다.” 는 이 장에 대하여 데레사가 말한 것이다. 데레사는 그녀가 쓰고 있는 것의 사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신했다.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그녀의 전체 작품을 통해 확장된다. “참된 영성인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이 장의 중간 부분에서 데레사가 던진 질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에게, 특히 그것이 하느님의 즐거운 은혜들로 가득한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탁월한 대답을 준다.

그것은 하느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낙인이 찍힌 영성인들은 스스로의 자유를 당신께 드려서, 당신께서 하신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 팔릴 수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영혼들은 당신의 종들이 되지 않으려 한다면, 그들이 많은 진보를 하지 못할 것이 확실합니다(8항).

그들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요는 외적 고요를 훨씬 덜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궁방들의 끝에서, 데레사는 두 가지 중요한 충고를 한다. 당신께 완전히 고정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키세요.” 이것은 여러분

의 매일의 십자가를 견디는 용기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봉사를 의미한다.

6.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제6궁방들을 통하여 제7궁방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께서 너무나 많은 은총들, 정화들, 시련들과 은혜들이 있는 이 궁방들에 대한 문을 점차적으로 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인간들을 이 성의 마지막 궁방으로 이끄시면서 이렇게 인간들의 일에 간섭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단지 우리 영혼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인가? 아니다! “지존께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께서 사셨던 삶을 그대로 본떠야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들은 우리의 나약함을 강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아드님의 커다란 고통을 본뜰 수 있도록 하시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항)

7.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영적 혼인의 목적은 무엇인가? 데레사는 이제 이 책의 마지막에서 놀라운 대답을 준다. “딸들이여, 이것이 기도에 대한 이유, 이러한 영적 혼인의 목적입니다, 즉 언제나 선행들, 선행들이 생겨납니다” (6항). 그러나 데레사는 또한 그녀의 수녀들의 불평도 알고 있었다. 어떻게 그들이 선행에 전념할 수 있을까? 그들은 데레사가 그들을 위해 설립했던 엄격한 봉쇄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데려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설교를 할 수 없었고, 가르치거나 병원에서 일을 할 수도 없었다. 데레사의 대답은 솔직했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는 커다란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을 떠맡을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은 본분상으로도 더욱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의 사랑의 불이 그들의 영혼들을 불타오르게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덕행으로 그들을 항상 일깨워 줄 것입니다. 그러한 봉사는 작은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것으로-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당신을 위하여 많은 영혼을 구한다면, 지존께서는 여러분에게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일의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어떤 사랑으로 했는가를 보십니다(14-15항).

8. 데레사가 이 책을 쓰지 300년 후에, 프랑스 리지외 수녀원은 또 다른 가르멜 수녀가 하느님을 위한 커다란 소망을 경험하고 「한 영혼의 이야기」에서 비슷한 내용을 적었다.

원장님, 당신도 아시다시피 저는 성녀가 되기를 항상 원했습니다. 아! 저를 성인들과 비교해 보면 구름에 가려진 높은 산 정상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하찮은 모래알 사이에 있는 것과 똑같은 차이가 그들과 저 사이에 있음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망하기보다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루지 못할 소망을 불러일으키시진 못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조그맣더라도 성덕을 욕심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크게 자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모든 결점을 가진 나 그대로를 견뎌야만 한다. 그러나 아주 곧고, 가깝고, 완전히 새로운 작은 길로 천국에 올라가는 방법을 찾아내고 싶다.

지금 우리는 발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층계를 하나하나 걸어 올라갈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부

자들이 사는 집에는 그 대신 승강기가 잘 갖추어져 있으니. 나도 예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승강기를 만나고 싶다. 완덕의 가파른 층계를 걸어 올라가기에는 나는 너무나 작으니까.’ 그리하여, 제 소망의 대상인 승강기의 표징을 성경에서 찾아보았더니 ‘영원한 지혜’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잠언 9, 4). 그렇게 저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제가 찾던 것을 발견한 줄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 저의 하느님! 당신의 부르심에 대답한 ‘아주 작은 자’에게 당신께서 하신 일을 알고 싶어서 계속해서 찾아보았더니,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보는 아이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는 품에 안겨 있으며, 그들은 너희를 무릎에 올려놓고 돌보리라”(이사 66, 12.12). 아! 이보다 더 정답고 더 듣기 좋은 말씀이 제 영혼을 기쁘게 해준 일이 없었습니다. 저를 하늘까지 들어 올려 줄 승강기는 아! 예수님, 당신 팔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작은 채로’ 있어야 하고, 점점 더 작아져야만 합니다.(pp. 207-208)

그리고 같은 책의 또 다른 곳에서

이 아이가 청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 예수님, 그녀가 아는 것은 한 가지, 당신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녀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피를 흘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녀의 오빠들이 그녀 대신 일을 하고, 아주 어린아이인 그녀는 임금과 여왕의 옥좌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녀는 오빠들이 싸우는 동안 그들을 대신하여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니, 어떻게 그녀의 사랑을 증명할까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꽃들을 흩뿌릴 것입니다. 달콤한 향기로 옥좌를 향기롭게 하고 은방울 같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아 예수님, 제 꽃들이 당신께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 이 향기로운 비며, 여기고 아무 가치도 없는 꽃잎이며, 가장 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사랑의 노래가 당신을 사로잡으리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찮은 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승리 교회’의 미소를 자아낼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으로’ 잊어 버려진 저의 꽃을 주워, 아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손을 거치게 합니다. 이 천상 교회도 자기 어린아이와 같이 놀려고 당신 거룩한 손이 닿아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될 이 ‘꽃’을 흩뿌릴 것이고, 이 꽃들을 단련 교회에 던져 그 불길을 끄려 할 것이고, 전투 교회에 던져 그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려 할 것입니다(pp. 196-197).

논의를 위한 질문

1. 제7궁방의 영혼들은 죄나 불완전함을 범하는가?
2. 그들은 죄를 두려워하는가?
3.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예수님의 음식은 무엇인가?
6. 지존께서는 여러분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실까?
7. 당신께서는 우리 일들의 크기를 보시는가? 당신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음 호에 계속)

* 어두운 밤 연구 *

어두운 밤은 우리의 유일한 빛(24)

레오나드 두한 지음

서한규(하느님 신비의 시몬) 옮김 /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10. 요한의 가르침은 수도자들과 독신자들만을 위한 것인가?

요한은 그것이 그의 주된 의도라고 말한다(『산길』 서문,9).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평신자들이 요한의 지도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이 영성생활에서 얼마나 명확히 진보했는지를 보았다. 요한은 자연스럽게 개혁 수도자들을 위하여 글을 쓴다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작품이 교회에 주는 영향을 제어할 수가 없다.

『어두운 밤』은 영적 엘리트들을 위하여 따로 준비해둔 책이 아니며, “영혼”이란 하느님과의 더 깊은 합일을 갈망하는 모든 인간으로 쉽게 이해시키는 책이다. 오늘날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밤』을 읽고, 성숙한 영성과 강한 사랑이 도전을 받는다.

요한은 인간이 두 부분, 본성과 초자연, 물질과 영성, 감각과 영, 더 낮은 부분과 더 높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드리도록 격려한다. 그리하여 그에게 선과 악의 일반적인 구분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어떤 대상도 영혼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영혼은 돈에 애착하거나 기도나 권력에서 자기만족을 찾는 것에 애착하는 것처럼 자신의 신심이나 영적 지도자에게 쉽게 애착할 수 있다. 요한은 우리가 삶의 모든 면을 전적으로 하느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우리는 또한 요한이 작품을 썼을 당시의 수도 생활의 상태를 명심해야만 한다. 데레사는 강생 수도원을 “저 바빌론”이라고 불렀고, 많은 수도자들은 가족들이 알맞은 혼처를 찾을 만큼의 적절한 지참금이나 재산을 줄 수가 없어서 수도원들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요한은 개혁을 향하여 움직이는 사람들, 하느님을 향하는 삶을 기본적으로 선택하려는 선하고 헌신적인 개인들을 다루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평신자들이 오늘날 그러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영성생활에서 발전하기 위하여 독신을 요구하는 것이 요한에게는 없었다. 사실, 독신은 개인들과 조직들이 애착-영의 수동적인 밤의 정화를 필요로 하는 애착-하게 되는 영적 장점이 될 수 있다. 요한의 가르침은 하느님과의 합일을 위한 여정에 삶 전체를 바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11. 어떻게 요한의 작품이 현대 심리학에 부응하는가?

요한은 감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시대의 스콜라 철학적 심리학을 사용하였다. 영적 지도에서의 그의 방법을 보면, 그가 몇 년간에 걸쳐서 사람들을 신중하게 관찰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인간 발전에 대한 신중하고 깊이 성찰하며 공부한 것이었고, 그는 인간 감정들, 인간의 성취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 추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제공해 준다. 어떤 학자들은 요한의 심리학, 특히 사랑에 대한 접근법에 초점을 맞췄다. 존 웰치John Welch, 칼 융Carl Jung, 버나드 로너간Bernard Lonergan, 제임스 파울러James Fowler와 가브리엘 모란Gabriel Moran은 요한의 영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고 요한의 작품들에서 조명을 받았다.¹⁾ 케빈 쿨리건Kevin Culligan에 따르면 “인간발전, 무의식적 동기, 감정의 치유와 대인관계의 역동성에 대하여 성 요한이 이해한 것은 현대 심리학에 앞선 것이며 현대 심리학과 일치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의 표준에 의하여 요한은 유능한 과학적 심리학자 처럼 보인다.”²⁾

12. 요한의 시는 독창적인 것인가?

요한의 시는 세 명의 스페인 시인 가르실라소 델라 베가Garcilasco de la Vega, 후안 보스칸Juan Boscán과 세바스티안 데 코르도바Sebastián de Cordoba의 영향을 보여준다. 요한은 메디나 델 캄포에서 공부했을 때 그들의 작품을 읽었을 것이다. 요한은 운율과 그들이 발전시킨 목가적 주제에서도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 어쩌면 요한이 위대한 시 “어느 어두운 밤에”의 제목을 사랑하는 연인 알바니오가 “어두운 밤의 침묵 속으로” 떠나는 가르실라소의 “두 번째 목가시牧歌詩”에서 따왔을 가능성이 있다.³⁾ 요한은 또한 사랑하는

이가님을 찾아 나서는 중심 주제에 대하여 그리스도교에서 사도와 그리스도로 해석한 ‘아가’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사실, 요한은 네 개의 세속의 시들에 변화를 주어 종교적 수준으로 바꾸어 놓았다. 메넨데스 펠라요Menendez Pelayo와 다마소 알론소Damaso Alonso 모두는 요한이 스페인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고 말한다. 요한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자신의 경험을 상기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느님께서 합일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시를 사용한다. 요한은 영적 통찰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시의 형태를 사용한다. 그렇게 『영혼의 노래』의 1-12노래는 하느님을 초조하게 찾는 것을 묘사한다. 스페인어 원문을 보면 형용사나 부사가 없는데, 자세한 설명에는 관심도 없이 빠른 움직임을 묘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사랑하는 이를 발견하려는 갈망만을 묘사한다. 이 노래들은 많은 형용사가 있고 만남의 충만함과 만족을 넓고 표현력 있게 전해주는 13-21노래와 대조된다.

『산 불꽃』은 요한의 독특한 시적 구성으로서 일반적인 5줄보다는 6줄로 된 네 노래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영적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하여 더 긴 형태를 사용한다. 그 노래의 진행은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며 더 느리고 더 풍요롭다. 노래가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곳에서(네 번째 줄 이후에) 다시 두 줄이 이어진다. 그렇게 그는 사랑의 풍부한 만족의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요한이 시를 쓸 때, 그것은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신비가로서 쓴 것이다. 시들은 그의 영적 경험을 표현한 것이다. 그 독창성은 단어들을 숨겨지게 엮은 것이나 세련된 상상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각별한 내적 변화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의 작품은 그의 순수한 메시지, 그

1) John Welch, *When Gods Die: An Introduction to John of the Cross*(New York: Paulist Press, 1990), 2 참조.

2) Kevin C. Culligan, *Towards A Model of Spiritual Direction Based on the Writings of St. John of the Cross and Carl R. Rogers* (Ann Arbor: MI: University Microfilms, 1981), 5 참조.

3) Gerald Brenan, *St John of the Cross: His Life and Poetry*(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125 참조.

가르침의 인간적 진정성과 아름다운 표현을 뛰어넘어 결합한 것이다. 요한의 시들은 창조적 글쓰기나 창의적 표현의 결과가 아니라 깊은 경험과 내적 변화의 결과이므로, 독자들이 변함에 따라 언제나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한다. 그 함축적인 언어는, 독자들이 내적 변화를 인식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자극을 느낌에 따라, 이때에는 이러한 의미를 저때에는 저런 의미를 가진다. 요한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감상하도록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영적 만남을 전해주고 되살아나게 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를 쓴 것이다. 그 시를 읽을 때, 우리는 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도 발견하게 된다.

13. 무엇이 수동적인 밤을 일으키는가?

감각의 수동적인 밤과 영의 수동적인 밤은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다. 영의 수동적인 밤에는 주입된 관상이 포함되는데 감각의 수동적인 밤도 그럴 것이다. 영혼은 받기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의도하신 바를 이루신다(『산길』 1,13,1). 관상에서 영혼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믿음의 경험인데, 요한은 그것을 믿음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한다. 감각의 수동적인 밤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추리적 기도가 끝나고 관상의 단순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다. 영의 수동적인 밤에 영혼은 더 이상 예전의 경험이나 범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 지성으로 하여금 지식의 자연적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정확히 시고 빛을 비추어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기억으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이나 상상하는 미래의 일반적인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대한 희망 속에서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을 기억하거나 서서히 쌓아올리거나 피하거나, 혹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거나 제한하거나 스스로 제어하려고 하는 미래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미래를 더욱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의지로 하여금 많은 소망의 대상들 속에서 찾은 만족감에 전념하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히 그 모든 갈망을 하나님만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도록 하신다.

수동적으로 받는 것,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관심을 집중하고 자신을 비우는 것처럼 의도적인 행위일지라도 영혼이 그러한 경험에 공헌한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수동적인 밤이 죄 많은 자신에게 더 많은 빛을 줄 때, 영혼은 그러한 잘못들을 능동적으로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응답한다.

수동적인 밤의 고통을 일으키는 이유 중 일부는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경험이란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은 무가치하다는 고통과 고난과 채워지지 않은 갈망을 불러온다(『밤』 1,11).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밤이 일으키는 관상을 단순히 조명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숨어 있으며 불타오르는 사랑의 정확적 효과라고 이해해야만 한다.

어두운 밤의 경험은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은 아니다.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은 다른 방법으로 그 밤을 경험한다. 요한은 그 경험과 강렬함은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숭고한 뜻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말한다. 그 결과적 경험조차 육체적으로나 심리적

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르다.

14. 요한의 이미지는 독특한가?

이미지는 실재에 순간적 직관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국기는 나라를 상기시켜준다. 때때로 어떤 이미지는 특별한 감정이나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고, 우리는 그러한 이미지를 상징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특별한 국기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미지가 상징일 때, 우리의 지각은 전이나 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것이다. 그렇게 상징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반응은 분리할 수 없다.

요한이 사용했던 어떤 상징들은 전형적인 것들이다. 물은 갈증을 풀어주거나 씻는 것을 즉시 떠올리게 하고, 불은 따뜻함과 빛을 연상하게 해주고, 빛은 조명과 길 안내를 의미하고 밤은 어둠과 두려움과 길을 잃었다는 느낌까지 준다. 대부분의 경우에 요한이 사용한 이미지는 독특한 것은 아니다. 때때로 이미지-상징은 문화와 종교에 의해 풍요로워진다. 성경은 밤에 불기둥으로 선택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느님의 사랑과 선택된 백성들의 합일을 혼인잔치로 이야기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 사이의 사랑과 합일이라는 주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것이나 그 비슷한 이미지들은 영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자주 발견된다.

요한은 서로 완전히 내어줌, 합일과 그 관계의 영원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혼인잔치의 이미지-상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위고Hugh와 썬빅토르의 리카르도 Richard of St. Victor와 성 베르나르도 같은 다른 신비가들과는 달리 요한은 혼인의 합일에 관하여 노골적인 성적性的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랑과 상호

관계에 대한 매우 걱정적인 표현들도 있다 (『불꽃』 1. 『노래』 23, 24, 27, 34 노래). 『영혼의 노래』는 초조한 마음으로 찾아 나섬, 합일에 대한 갈망, 친밀감, 그리고 걱정적인 사랑 등 ‘아가’와 매우 유사하다. 친밀감, 다정함과 걱정에 대하여 요한은 또한 어머니와 아이들의 관계나 친구 간의 관계를 사용한다. 그렇게 요한이 사용한 것은 다른 작가들과는 약간 다르지만, 혼인은 중요한 이미지-상징으로 남아 있다(『노래』 22,3과 6 참조.). 신비적 합일의 상징으로서 혼인은 여성의 수동성을 의미하는 혼인에 대한 옛 시각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영성 신학에서의 이미지-상징의 사용에 대한 요한의 독특한 공헌은 247번을 사용한 어두운 밤의 이미지-상징이다. 다른 작가들도 이것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이미지-상징에 그 독창성과 깊은 의미를 준 사람은 요한이다. 이러한 이미지-상징은 자연스럽게 어둠, 불확실함, 초조함과 두려움까지 일으킨다. 종교는 하느님의 현존과 안내하심이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풍요롭게 해 왔다. 카스티야, 특히 메디나 델 캄포와 세고비아, 그리고 무엇보다 톨레도 감옥에서의 요한 자신의 경험 모두는 이러한 개념을 풍요롭게 해 준다. 요한에게 “밤”은 삶 전체에 대한 의미를 가지며 (『산길』 1,3,4), 특히 영적 여정 전체를 묘사한다. 요한은 “어두운 밤”, “행복한 밤”, “이끌어주는 밤”, “새벽보다 더 다정한 밤”, “사랑하는 이와 나를, 하나 되게 하는 밤” (『밤』 1,3,5 노래), “동녘 여명 떠오르는 고요한 밤”, “고요한 밤에, 태우며 고통을 아니 주는 불꽃” (『노래』 15,39 노래)으로부터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준다.

(다음 호에 계속)

* 성인의 시 *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시와 해설

십자가 송 Ayes del destierro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1. 십자가! 내 삶의 안식(安息)
어서 잘도 오시라
2. 아 깃발! 그 감싸줍에
연약한 몸 굳세어지고
오 우리 죽음의 생명
죽음을 어이 되살리시고
3. 사자(獅子)도 길들여 순히 만들어서
너로 해 목숨을 버리게 하느니
어서 잘도 오시라
4. 널 아니 사랑하면 사로잡힌 몸
자유와는 등진 몸
너를 향해 나아가면
언제나 빛가지 앓으리라
5. 오 사악(邪惡)이 몸들 바 없는
상서로운 힘이여
어서 잘도 오시라
6. 호된 우리 종살이에
너는 해방이었어라
너로 해 짜장 귀한 약 있어
몸쓸 내 악(惡)이 고쳐졌어라
7. 너는 님께로 가는 길
영광을 얻게 하였나니
어서 잘도 오시라

해설

성녀 예수의 데레사가 쓴 이 시의 원문 제목은 loaz a la cruz 인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십자가에 대한 현양(顯揚)>이라는 뜻이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구원의 도구인 십자가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제사를 바치기 전까지는 로마제국의 국사범을 처형하기 위한 하나의 형벌 도구에 불과하였지만, 그것을 통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축성되어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

9월 14일 십자가 현양 축일에 드리는 성무일도의 독서기도에서 크레타의 성 안드레아 주교는 이렇게 가르친다. “십자가는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축복을 얻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업적에 있어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과 그분이 당하신 수난이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 만큼 십자가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십자가는 또 보배롭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받으신 고난이고 상패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마귀는 상처를 입어 죽음이 정복되고 지옥문이 산산이 부서져, 그를 통해 온 세상이 공통적인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현양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성녀는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서 마련하여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믿음에 따라 비록 우선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안식처이니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당당히 선언한다.

2절에서 십자가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터에서 우리가 겁을 먹고 위축하거나 비겁하게 숨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온천하에 당당히 드러내는 깃발이라고 생각

하여 그 휘호 아래 용기 충천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니, 마치 죽었던 생명이 부활한 것 같다고 말한다.

3절에서는 십자가를 따르는 정신은 사자처럼 포악하게 악으로 기울어지던 우리의 본성을 억눌러 이기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모든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말하고

4절에서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면 할수록 영혼은 자유롭지 못하고 무언가에 얽매이게 되고, 십자가를 기꺼이 따라가면 언제나 구원의 바른길로 가게 된다고 말한다.

5절에서는 다시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악한 권능과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된다고 말하면서, 언제나 복되고 상서로운 힘과 능력을 지닌 십자가를 한결같이 반겨 맞겠다고 선언한다.

6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마치 힘겨운 종살이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데,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원수들인 세속, 마귀, 육신의 권세에 시달리며 상처 받고 고통당하는 영혼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것을 치유하는 진정한 명약이고 해방이라고 말한다.

7절에서 십자가는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고, 우리에게 영광의 상급을 얻게 하는 수단이니, 그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거부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거듭하여 말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미와 찬송을 마무리한다.*



* 선교 *

이콘 수업

서창규(어머니 마리아의 알로이시오) 신부/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2월 말 중국어 학기를 마치고 약 1주일간의 방학을 얻었다. 같은 반 친하게 지내는 신부님이 몇 주 전부터 방학 때 같이 이콘 수업을 듣자고 제안했다. 평소 그림 그리는 데에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도 않았고 재능도 있지 않다고 여겨서 고사할까 생각도 했지만, 신부님은 로마에서 공부할 때 이콘 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너무 좋았다며 꼭 같이 듣자고 계속 나를 꼬셨다. 그래서 '이콘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실까?' 싶어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았다.

이콘은 단순한 예수님 그림이 아니라 기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회의 전통적인 기도 도구라는 설명이 흥미를 일으켰다. 그렇다면 기도생활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고난은 알지 못한 채 내심 기대하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업은 6일간이었는데, 하루 수업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다. 오전 8시 반에 함께 미사를 시작으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그림을 그려야 했다. 첫날은 그나마 할 만했다. 오랜만에 그려보는 그림이라 그런지 집중도 잘 됐고, 예수님의 얼굴을 찬찬히, 조심스레 그리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대하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귀하게, 섬세하게,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하셨겠지... 나아가 나를 대하시는 성모님의 모습도 이럴것구나 싶은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며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감사가 올라왔다.

그런데 수업 이튿날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다.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9시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오후 6시가 되어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그날 수업은 저녁 8시가 돼서야 끝이 났고, 이러한 사태(?)는 수업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매일 하루 10시간에서 11시간씩 계속 앉아서 예수님 얼굴을 그리고 색칠하고를 반복했던 것이다.

하루 10시간이 넘도록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자, 실력도 없는데 집중력마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몸에도 이상이 생겼는지 허리에 통증이 느껴졌고, 급기야 입술까지 터지고 말았다. 그러자 첫날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대하던 성모님의 마음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이 귀한 방학에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싶어 슬슬 부아가 치밀기 시작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앉아서 꾸역꾸역 그려나갔다. 하지만 옆에 있는 다른 수강생들의 그림을 볼 때면 내가 그린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초라해 보였다. '과연 마지막에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까?'하는 의심이 살짝 들기도 했다.

그렇게 하루의 과정이 마무리될 때 즈음이면 매번 선생님께서 직접 내 그림을 마무리해주셨다. 선생님께 내 그림을 보이는 게 조금 민망하기도 했지만, 전문가의 손길이 스치자 초라해 보였던 예수님은 점점 온유한 모습의 예수님으로 바뀌었고, 흐리멍덩해 보였던 눈빛도 진한 눈썹에 초점이

선명한 정상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어갔다.

선생님이 내가 그린 그림 위에 능숙한 붓놀림으로 다시 이런저런 덧칠하는 것을 바로 뒤에서 지켜보던 중 불현듯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

수도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몸에 힘이 들어가 있고, 공로를 많이 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교회는 분명하게 가르친다. 구원은 스스로의 공로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자 '은총'이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고, 그것을 식별하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숙명일 것이다. 그중에는 분명 마음에 드는 일과 피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한 만족할 만한 결과, 혹은 지워 버리고 싶은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생의 마지막 날에 이러한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마치 이콘 수업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난 후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선생님을 맞이해야 했듯이 말이다.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그려온 삶이라는 그림에 능숙한 붓놀림으로 덧칠을 하시며 그동안 수고했다는 따뜻한 인사와 함께 깨끗함과 떳떳함보다는 민망함과 나약함이 더 많아 보이는 인생 그림을 당신 손으로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이다.

중국선교 역시 앞으로 어떤 십자가들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내게 주어지는 고유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꼭 껴안고 묵묵하게 그 길을 따르며 걸어간다면,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서는 먼지투성이인 내 삶을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아름다운 보물로 손수 꾸미시며 완성하시지 않을까?

어쩌면 이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콘 수업을 만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들어갔던 몸의 힘 좀 빼고 살라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받은 талан트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보라는... 그리고 마무리는 당신께 탁 맡기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다.

6일간의 이콘 수업을 통해 얻은 값진 가르침이다.*



* 성소 *



가르멜로 74-56길

우리는 종종 향긋한 냄새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향이 그리워 다시 찾기도 하죠. 그러다 좋은 향이 우리의 손이나 어디에 묻곤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향이 나는 부위에서 냄새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취가 우리에게 묻었을 때도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악취에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종종 냄새를 맡곤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기도 중에도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계속 떠올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리도 모르게 그 상황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다보면 우리는 그 사건에 느꼈던 감정을 떠올리고, 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심 속에 빠져들어 갑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묻은 냄새, 흔적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일과 감정에 집착하게 되어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혹은 여러 순간들에게서 묻혀온 이 냄새들에 빠져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과거의 냄새들에 갇혀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냄새에서 벗어나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느님의 손길을 찾아보고, 지금 이 순간을 하느님께 드릴 때인 것이죠.

언제나 과거와 미래가 모두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살짝만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소문의: 010-2140-7414

facebook: 가르멜로(Carmelo)

instagram: reumelga

* 회원의 글 *

“2021년 한국관구 양성책임자 교육(1차)”을 마치고

이남용(십자가 성 요한의 안드레아)/ 인천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영등포역에서 기차에 몸을 실었다. 전의역에 내리니 시골 풍경 그대로였다. 기분이 상쾌하였다.

정하상교육회관 현관 앞에는 “한국관구 양성책임자 교육(1차) 환영합니다.” 라고 적힌 문구가 나를 어서 오라고 손짓하며 반겨주었다. 등록절차를 마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1인 1실로 배정된 B3401호 나의 방으로 들어섰다. 잠깐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니 신록의 푸른 숲이 나의 시선을 끌었다. 잘 왔구나, 마음이 편안해졌다.

대성당에서 개회 미사를 드리고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오리엔테이션 후 신부님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우리 양성책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내용들이었다. 신부님께서 열심히 여러 참고자료를 조사하여 강의(교재)를 준비한 모습이 역력히 보였다.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신부님께 감사드린다. 신부님의 강의 중 교안 작성 시 “나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준비했으며, 피양성자는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라. 그리고 핵심만 전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꼭 실천하고 싶다. 예를 들어 나는 청원기 동안 다른 양성도 중요하지만 특히 성무일도와 묵상기도 양성에 더 집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적 양성에 치중되어 있는데 생활에 대한 양성이 필요하다.(기도 등)” 라고 하신 관구장님의 말씀처럼 나도 생활 양성에 힘쓰고 싶다.

저녁식사 후 나눔 장소로 이동하여 단계별, 조별로 양성책임자 간의 활발한 나눔을 하였다. 나는 “양성책임자가 먼저 양성이 되어 피양성자에게 양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나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양성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도 양성된다고 느꼈지만 모든 것이 많이 부족하고 피양성자에 대해 사랑으로 항상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했는지를 반성하며, 앞으로는 양성책임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자세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나는 데레사와 함께 가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양성책임자 교육을 앞두고 데레사가 그만 넘어져서 팔을 다쳐 깁스를 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가게에 꼭 출근해야만 되는 처지였다. 그래서 나는 양성책임자 교육에 꼭 참석해야 되나 하는 인간적인 갈등도 많이 느꼈다. 그렇지만 하느님 일을 항상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계속 기도하였다. 그래서 참석할 수 있었다.

묵상기도 중에 예수님이 “안드레아야, 참 잘 왔구나” 하시며 어깨를 다독다독 두드려 주셨다. 가슴이 뭉클했다.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양성책임자로서 교육에 매번 참석 못 해 무척 아쉬웠는데 이번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도와주시고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속 맨발 가르멜회의 생활은 기도 생활에 충실하며, 나의 일보다 하느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보람차고 알찬 교육이었다. 다음 기회에 또 오고 싶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믿는다. 아멘!* (2021. 7. 10.)

* 순례기 *

18일간의 숨바꼭질

윤원조(예수마리아의 리드비나)/ 고성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

3. 제 2 일째

(2018년 5월 1일 부활 제5주간 화요일) 체코공화국(프라하) - 폴란드(브레슬라우, 브로츠와프)

순례 첫날 버스 안

우리의 첫 순례지 에디트 슈타인을 향해 길을 나서다. 성녀 자체가 우리에게서 미지의 섬이고 숨겨진 금광이며 순례지 자체이다. 프라하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국경을 넘어 곧바로 폴란드 브레슬라우를 향해 길을 나선다. 제2차 세계 대전 전까지만 해도 독일 영토였을, 성녀로 하여금 독일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탄생지, 독일 브레슬라우, 이제는 폴란드 영토 안의 브로츠와프.

‘브로츠와프.’ 성녀의 탄생지라고 하기엔 얼마나 낯선 어감인가? 독일인으로서 독일에 대한 애정이 지극한 성녀였다. 버스에 실려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은 유채꽃밭의 노란색 향연이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소리가 난다. 마이크 소리로 버스 안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멀미가 심하시다는 제일 앞좌석의 지도 신부님.

“가짜 가이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드디어 실질적으로 우리 순례 첫날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순례가 있기까지 도움 주신 성모 마리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의 순례를 끝내고 드디어 제2의 순례 길에 오른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 전해드립니다. 순례 또한 하느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럴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 우리 순례 동안 노심초사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가이드 조원경 크리스티나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여러 면에서 보호해줄 엄마 님이 될 것입니다. 자, 엄마 님 티나 자매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때부터 버스 제일 뒷좌석에 자리를 잡은 나의 본격적인 순례기 기록은 시작되었다. 순례 기록을 한다는 부담이 컸었는지 여행가방 여기저기서 발견된 볼펜만 30자루가 넘을 지경이었다.

“이 볼펜을 다 쓰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내년쯤 한국에 가게 되겠습니다.”

‘덤 앤드 더머’ 라는 팀명을 나와 나눠 가진 나의 룸메 ‘덤’ 이 웃는다. 첫날을 함께 보낸 후 두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이 빠릿빠릿하지 못하다는 것을 서로 눈치챘다.

“우리는 덤 앤드 더머네요. 하하하. 자, 우리가 진정한 ‘덤 앤드 더머’ 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머리 나쁜 악당이 되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야 해요. 하하하”

목적한 순례지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서너 시간씩 이동을 해야 하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매일 기도와 묵상, 그리고 순례지에 대한 연구 나눔을 하게 되었다.

연구 나눔 (에디트 슈타인 1 - 브레슬라우, 고향 집 방문)

“저는 세 성녀의 순례여행이 기획되기 전부터 에디트 슈타인 성녀를 마음속 깊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처음 읽게 된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계획에는 없던 것이 하느님 당신의 계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그 문장을 보자마자 많은 생각이 뇌리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성녀를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 문장 안에는 절대자를 향한 당당함과 완전한 순명이 동시에 있었으며 인간이 가공할만한 자신의 고통 앞에서 이렇게도 우아할 수가 있구나, 하는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이 문장은 성녀의 논문집에 실린 글이었고, 성녀의 고통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된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성녀의 극적인 삶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에 대한 답변처럼 되어버린 했습니다. 성녀의 글을 읽으면 예언적인 부분이 꽤 많음을 느낍니다.

하느님은 당신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인간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피조물로서, 종으로서나 청원자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자유의지’ 안에서 당신 아드님 예수님처럼 거침없는 자유로 선 인간이 선택한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자신의 고통 앞에서 절대자를 향한 이 말.

‘하느님 나의 계획에는 없었던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이신 당신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므로 저는 당신께 대한 완전한 사랑의 표시로 여기에 순명합니다.’ 성녀의 이런 다짐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례하나이다. 십자가여, 유일한 희망이여!’
(1939년 9월 14일 십자가 현양 축일, 서원 갱신을 위해서 쓴 글에서)

브레슬라우는 2차 대전 전 독일에 속했기에 독어 이름이고 지금은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입니다. 성녀와는 상관이 없는 폴란드 발음이지요. 이곳은 1742년 평화조약을 통해 프로이센의 영토로 편입되면서 독일의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대표적인 독일의 도시입니다. 우리 ‘공순모’가 ‘기본 책’으로 선정해서 공부한 ‘수자와 카오리’ 여사가 쓴 ‘에디트 슈타인 (사랑과 진리의 불길)’을 보면 이곳은 성녀의 인생 중 성녀와 서너 번 연관된 곳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탄생지로서의 브레슬라우입니다. 성녀는 1891년에 태어났고 부모님은 1890년에 브레슬라우에 살기 시작합니다. 성녀의 어머니는 1893년 사업차 간 타지에서 일사병으로 갑자기 임종한 남편 대신 목재상을 평생 이 브레슬라우에서 했고, 1936년 브레슬라우에서 돌아가십니다. 나치 탄압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희생되기 전에 돌아가시지요. 성녀는 여기에서 탄생하여 브레슬라우 대학 2년을 마칠 때까지 이곳에서 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브레슬라우는 성녀에 대한 기억을 가장 많이 가진 장소일 수 있습니다.

브레슬라우에서의 성녀의 삶을 ‘자서전’을 통해 엿보자면, 성녀는 일곱 형제자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성녀를 포함해서 나치에 희생된 형제자매가 넷, 다행히 미국이나 남미로 이주해서 희생을 면한 형제자매가 세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우슈비츠에서의 마지막을 함께 한 아홉 살 위 언니인 ‘로사’에 대한 언급은 재미있습니다. 어릴 적 별명이

‘사자’ 였던 것만큼 로사는 요즘 말하는 약간은 자유분방한 성격을 지닌 반항적인 기질의 소유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언니가, 돌보던 어머니가 임종한 후 이미 가르멜 수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성녀를 찾아 쾰른 가르멜 수녀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톨릭 세례를 받고, 1938년 12월 31일 쾰른 가르멜 수녀원에서 옮겨간 에히트 수녀원에서 성녀와 함께 나치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 결국 언니가 걸었던 길은 제 길과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성녀가 로사 언니에 대해 쓴 표현인데, 이 글을 쓸 당시의 같은 길은 로사가 가톨릭 세례를 받게 됨을 암시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함께하는 예언적인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후세인들이 이 문장을 지나칠 때에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성녀의 글에는 이처럼 예언적인 부분이 무척 많은데요.

“저는 꿈속에서 언제나 멋진 미래가 제 앞에 펼쳐진 것을 보곤 했습니다. 저는 행복과 영광 속에 있는 저를 꿈꾸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언가 위대한 일을 위해 운명 지워졌고 그것은 제가 태어난 작고 평범한 환경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학문적 성과를 이루고 강연을 다니는 성녀를 본 많은 증언자들은 외적으로 작고 겸손하고 소박한 느낌으로 성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성녀가 생각하는 무엇인가 위대한 일은 현세적인 성공이나 일상의 행복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된 의미의 행복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한 엘제 언니의 함부르크 집에 가서 머무르면서 사춘기 시절을 마감하고 돌아왔을 때 성녀의 말입니다. 큰 언니 집에 머무르는 동안 성녀는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기회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류에게 봉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에디트 슈타인이 그 이후 실존적 결단을 내리고 자신을 투신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에디트는 삶의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원천을 발견했다.” (‘에디트 슈타인 영성 입문’,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 지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녀가 유대교를 떠난 이유, 여성 인권가로서 활동하게 된 동기,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으로 택하여 결국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가르멜 수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서전에서 우리는 형제들의 특징 외에도 성녀 주변 친지들의 묘사를 통해 유대인들의 삶과 가치관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녀가 14살 사춘기를 기점으로 무신론으로 돌아서게 되는 동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의미 있는 진리를 찾아 무의미한 신을 떠났던 것이다.” (‘십자가 신비’ p120, 박정오 프란치스코 신부 지음)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의 기저를 이루는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성녀의 자서전 속 숙부의 자살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숙부는 성녀가 10살 때 사업상 어려움으로 총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랍비는 장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육신이 먼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망자에게 영을 선사해 주신 하느님께 영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사후에 한

개인이 살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한 그리고 훗날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데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제가 처음으로 가톨릭 장례 예절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와는 아주 다른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처음 참석한 장례는 유명한 어느 학자의 장례였습니다. 장례 예절에서 그분 공로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묘비명을 통해 그 불쌍한 영혼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망자를 영원히 맡기는 장례의 말씀들은 얼마나 위로가 가득하고 평온했는지 모릅니다.”

일 년 후 아버지의 형제 중 가장 어린 숙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자살이 소름 끼치는 그 무엇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보통의 죽음과는 너무도 다른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에 대한 강인함과 함께 그와 비슷한 경우들을 들어 말씀하시며 그런 임종은 오직 정신 장애로만 설명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빈번한 자살에 대한 성녀의 시각이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이승의 삶의 성화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감당해야 했던 경제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세월 수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자살자를 양산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 또한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후에도 한 개인이 생존할 것이라는 점은 믿을 교리가 아닙니다. 모든 열망은 바로 현세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신심 깊은 사람들의 경건함은 이승의 삶에 대한 성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끈질기고 강인하며 지칠 줄 모릅니다. … 그러나 눈앞의 목표를 견지할 줄은 알지만 그 목표가 자신에게서 사라지면 긴장을 견딜 줄 아는 능력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게 있어 삶은 무의미해지고 아주 쉽게 모든 것을 거부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한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가져다줍니다.”

여기에서 성녀가 개종을 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읽힙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성녀가 직업 선택에 대하여 한 말에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에 봉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에 알맞은 직업에 종사하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부터 성녀의 가치관은 이미 가톨릭 신앙의 핵심에 와 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제부터 서서히 이 아름다운 영혼을 당신에게로 부드럽게 끌어당기실 것입니다. 씨실과 날실이 아름다운 천을 만들어내듯 하느님께서 성녀에게 고통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영혼의 천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브레슬라우 성녀의 집

(다음 호에 계속)

* 회원의 글 *

바람의 언덕을 넘어

박계용(예수 성심의 도미니카)/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이른 아침 몽실한 구름이 가득한 하늘, 구름 사이로 언뜻 보이는 연한 하늘빛은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발합니다. 한 없이 포근한 자애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 주시는 듯 감미로운 행복입니다. 아련하게 번져오는 평화로움이 사라질 때까지 오래오래 올려다봅니다. 점차 흩어지는 작은 구름에 얽힌 기억의 곳집은 어느덧 바람의 언덕을 넘어 낯선 길을 갑니다.

‘보고 싶는데, 올 수 있나?’ 는 조심스러운 한 말씀에 기꺼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간을 선택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길을 떠날 수 있음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타국살이 설움에 더하여 보이지 않는 불청객으로 인하여 위리안치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 만나요’ 코비드-19 백신주사를 마친 요즘 만나자는 기별이 잦습니다. 가시 울타리를 허물어 뚫고 닫아 놓았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리움을 담고 오는 바람을 마중합니다. 우리가 되어 반가움으로 정담을 나누며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아팠던 날이 더 많았음을 위로하고 다독이며 사별의 슬픔도 떠나보냅니다. 종일 묵언이 일상이었던 긴 시간을 지나 ‘함께’ 라는 기쁨에 수다쟁이가 되었음을 반성하며 돌아오는 길 주고받은 다정이 따스합니다.

이민 후 첫 귀국의 어느 여름, 공항에는 언니들과 장미꽃을 든 엄마가 마중 나와

계셨지요. 돌 전의 외손녀와 헤어진 그 당시 기억에 머물러 있던 엄마는 자꾸만 갓난아기는 어디 있냐고 찾으셨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의 엄마와 아버지는 중풍으로 여러 달 입원 중이셨습니다. 예전엔 미국에 살던 언니가 서울에 도착하면 며칠 쉬었다 집에는 천천히 오라 하시던 아버지, 제 전화를 받으시곤 “지금 못 오지?” 빨리 보고 싶다는 심중의 표현이셨겠지요. 다음 날, 아버지를 대전에서 뵙고 한의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마침 복날이라고 일가인 원장님이 저희 가족에게 삼계탕을 대접하셨던 기억이 가끔 떠오릅니다. 삼계탕에 들어 있던 작은 한 뿌리 인삼의 향과 풍미를 새롭게 느낀 날이었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첫새벽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의 팔월. 혜화동 서울대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카리타스 언니의 소식에 곧바로 방문하신 관구장 신부님, 담 너머에 수도원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신 신부님의 간구에 하느님은 연명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숨을 돌려주셨습니다. 도미니코 성인 축일, 폭우 속에서 기다리시던 신부님의 마중으로 도착한 고즈넉한 계양산 자락의 수도원, 오롯이 봉헌해 주신 축일 미사는 하늘 아버지 안배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참례를 다녀오던 길에 만난 도라지밭, 어린 날 고향 집 텃밭에 무리 지어 피어 있던 도라지꽃이 빗방울 달고 순하게 피어 있던 거기.

남미 두 나라를 거쳐 미국으로 오기 전 부모님을 뵙기 위해 팔월의 고향에서 보름을 지내고 다시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들과 번갈아 성모님을 안아 모시고 하늘길을 날아왔지요. 서울을 떠난 날도 엘에이에 도착한 날도 성모님 하늘에 오르신 축일이 서른 번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고국 방문을 할 때마다 돌아오는 가방 속엔 언니가 맑은 별에 말려준 수삼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봄, 한국식품점에서 눈에 띄는 수삼을 구입하고 집에 와 살펴보니 도라지였다지요. 눈에 익었던 수삼 포장이란 똑같은 모양새에 당연히 수삼이라고 여긴 선입견이 저지른 낭패스러움, 그 당혹감을 섬광처럼 스치는 흑시~라는 설렘과 바꿈질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성심의 사랑이 내려다보시는 꽃밭에 심은 도라지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백도라지도 피려는지 진보라와 연둣빛으로 올라오는 색이 다른 튼실한 줄기는 환희심이었지요. 봉긋한 꽃망울이 맺히고 곱디고운 보랏빛 도라지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복된 착각이여~' 마른 뿌리에서 싹을 키워 내시고 꽃을 피워 주신 생명의 신비에 감탄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수삼을 샀더라면 삼계탕 몇 번 더 먹었을지 모르지만, 이리 고운 도라지꽃을 만날 수 있었을까. 꺾어지고 떨어진 꽃송이도 안쓰러워 물에 띄워 놓지만, 오늘은 처음 피어난 도라지꽃 딱 한 송이 꺾어 고개 날망을 넘어갑니다. 외따로 핀 도라지꽃 한 송이랑 벼를 문병 가던 그날처럼.

수도원 가는 언덕은 신기하게도 고향 가는 도중 굽이굽이 돌아가는 차령고개를 닮았습니다. 꿈길을 가듯 우듬치고개를 지나 소라실고개를 넘어 그리움을 안고 가르멜산 고갯길을 오릅니다. 돌아보면 아득한

그 길, 발 부러져 오가도 못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홀로 때론 동행의 기쁨과 사랑이 길라잡이 되어 앞서가는 가르멜산 등반이었습니다. 복된 가르멜산 여정 발자국마다 더 바랄 것이 없음에 감사의 정이 차고 넘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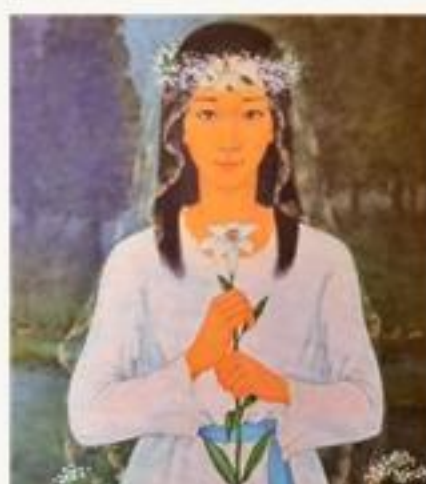
바위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
고개 위에 숨어서 기다리던 님
그리워 그리워 눈물 납니다.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도라지꽃 한 송이, 보고 싶다는 그리움을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하얗게 사워어 갑니다.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노래하는 도라지꽃을 안고 빛고운 하늘 저편 님 계신 그 집을 찾아갑니다.

- 주께 빌어 얻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



*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



수학여행을 가듯이...

박지현(성체성혈의 요셉피나)/ 서울 성 요셉 공동체

기차길 옆, 망초 꽃대가 위로 훌쩍 올라 서서 키를 재고 있다. 하늘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한데 어우러지듯 피어나 함께 성장하는 우리 가르멜인들 같았다. 전의 역이 멀지 않았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아담한 시골 역, 앞서 걷는 수련장님을 따라 단계별 양성책임자들이 졸졸, 작은 캐리어를 밀며 따라갔다. 담임선생님을 따라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처럼 말이다. 소나무향이 짙게 풍기는 가로수 길을 따라, 정하상교육관으로 향하던 길, 마을을 감싼 짙푸른 나무숲을 지날 땐, '어머나 아름다워라.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 라고 하며 감탄을 했다.

정하상교육관은 주변 산과 나무들이 너른 팔로 껴안고 있는 형상이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지만 낯설지가 않고, 편안하고 친숙했다. 양성책임자를 위한 교육 중 첫 번째 여정, 2박 3일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단출하고 전망 좋은 숙소, 아무 때나 들어가 기도할 수 있게 개방한 성당. 그리고 갈색 스카폴라를 입고, 함께 강의를 듣고 나눔을 하며 유대감을 다지는 양성책임자들.

여유 있게 짜인 일정표에 따라 틈틈이 기도하고 산책하면서, 코로나로 단절됐던 자연과 이웃의 관계에 숨을 불어넣고 있었다. 교육관 뒷마당에 조성된 정원에선 마

스크를 쓴 채 사진을 찍으며, 여고시절의 추억에 젖기도 했다. 저녁식사 후에 마련된 단계별 양성책임자들의 만남과 9개의 조로 나뉜 조별 나눔 시간은, 그야말로 백미였다.

신부님들의 강의를 들은 터라, 각자의 경험과 현실적인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연계, 접목되는 느낌이었다. 많은 이야기들이 거론되었다.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이라 생동감이 넘쳤다. 그간의 양성이 너무 지적이고 이론적인 방향으로 흐른 건 아닌지, 이제는 영적, 정서적, 인성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통합된 양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어떤 양성책임자는 피양성자가 유보되었거나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마치 양성책임자 자신의 부족함은 아닌지 자책하게 된다고 했다. 또 피양성자가 자기 개방을 하지 않고, 방어하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접근해서 자기를 스스로없이 개방하도록 도와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했다.

때로는 양성책임자가 객관적인 식별을 하지 않은 채, 좋은 부모의 역할만 하려다 한계 이상의 것을 끌어안고 감당하려는 오류를 범한다고도 했다. 본보기가 될 여러 사례들이 나왔다. '처음 양성책임자를 말

고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래서 영적독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컴퓨터로 쳐서 온 집안에 붙여 놓고 다 외워버렸다. 지금은 책 없이도 양성을 할 수 있을 정도' 라니 그 수고와 열정이 대단해 보였다.

어느 양성책임자는 '내 뜻대로 되어 주지 않거나, 자기를 개방하지 않는 피양성자 때문에 맘고생이 컸는데, 나중엔 한계를 느끼고 집중기도를 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상대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양성은 양성책임자와 피양성자 간에 다리를 놓는 동반여정인 것 같다.' 는 말에 다 같이 공감했다.

어떤 양성책임자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 마음 상태, 부족함, 결함 등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을 꺼리는 대상을 위해,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는 노트를 써보라고 권유했다. 그런데 의외로 성실히 작성을 해왔고, 양성시간에 읽고 나눔 하는 훈련을 하면서 자기 개방에 대한 부담을 극복하여, 자아인식에서 큰 진보를 했다고 한다.

피양성자들이 참사회 면담과 종신자격에 대한 평가나 판단에 얽매어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양성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위축이 되어 진솔한 삶을 개방하지 못한다면, 누굴 믿고 자기의 나약함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양성책임자는 피양성자들이, 잘하는 것은 격려해주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내면의 어려움이나 결함을 솔직히 개방할 수 있도록, '이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 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았다.

신부님의 강론 중에서, 가장 최악의 양성책임자는 피양성자들이 자기의 약점을 숨기게 하고, 개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라고 했다. 그만큼 우리(양성책임자와 피양성자)는 자기의 부족함과 약점, 노력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악습들에 대해선, 관대함이 아닌 비판적인 시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조별로 나눔 한 것을 조장이 발표하는 시간엔, 배움을 주고 새삼 각성하게 하는 경험담들이 소개되었다. 지적인 교육에 집중해온 기존의 양성 방식에서 이제는 인성적 양성을 가미하고 보완하여, 영적, 인성적, 정서적, 심리적, 지성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에서 두루 통합을 이루는 것이 이 시대의 양성 목표임을 배우고 인식했다.

쉽과 기도, 배움! 그리고 존재이신 하느님을 마주하며 맘껏 사랑에 취해 본 2박 3일이였다. 그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생수가, 양성책임자로서의 역할에 힘과 활기가 되어줄 것이며, 양성책임자와 피양성자, 그리고 하느님으로 이뤄진 삼각형(삼위일체)의 관계를 견고하게 해 줄 것이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내내 생각했다. 피양성자들이 자기의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길 바란다면, 양성책임자인 나부터 자기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먼저 드러내야 할 터. 그 도전을 안고 돌아왔다.

갈 때 보았던 기찻길 옆 망초 꽃대가 비바람에 젖어 흔들리고 있었다. 2박 3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적셔준 하느님 사랑의 생수에, 소화 데레사 성녀의 장미꽃비가 따라오고 있었다. 행복했던 나들이, 좋은 강의해주신 신부님들과 교육을 준비해주신 관구 참사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 회원의 글 *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열 명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창세기 18장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손들에게 正義와 公正(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족장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소돔으로 이주했다.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는 지나치게 타락한 탓에 하느님께서 두 도시를 파멸시키실 예정이셨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만약 그곳에서 50명은 안 되어도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의인 10명 때문에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며 하느님께 간청한다. 그러나 의인은 10명이 되지 못했다. 결국 하느님께서 두 도시를 파괴하기로 하시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공정의 변(辯)을 들으시어 한 밤중에 천사 둘을 미리 보내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게 도우신다. 하느님께서 이 걸림돌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자유의지로 팁(tip)을 주셨지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으로 변하는 불운을 당했고 두 도시는 유황불로 파괴된다(창세기 19장).

이 시대의 화두(話頭)인, 원칙과 상식

이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이사야시절에도 아브라함시절에서도 무척이나 추구했었던 일. 인류가 중요하게 여기고 깊이 생각하는 만큼 쉽게 풀리지 않는 명제. 正義와 公正. 이사야서에서는 참 많이도 거론된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탄원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엎디어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아프고 고달프고 외로워 스러져가는 이웃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하느님사업에 동참하는, 주님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피조물로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는 그들에게 나눔으로써 행복을 만끽하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과 눈을 맞출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열정도 따라 할 수 있으리라.

질병으로 더욱 더 복잡해진 요즘의 세계. 설상가상(雪上加霜), 옆친 데 덮친다고 크고 작은 사건·사고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줄줄이 일어난다. 따라서 사람들은 마음이 바빠지니 스스로 피해해지고, 스스로 번거로워진다. 많은 이들은 사건·사고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 혼란스러운 일을 생각하면 내 맘이 불안해지니 관심은 갖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 아닌 이유를 핑계로 사회적인 불행에서 등을 돌린다. 게다가 “나의 생각만이 진실이고 나와 다른 의견은 거짓”이라는

말이 “참” 이 되어가는 작금의 이 현실..

내 아버님은 고등법원에 재직하시던 **김홍섭 바오로 판사님**(1915~1965)을 대부님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대부님을 많이 따르시고 존경하셨다. 법조계의 성인이셨던 김홍섭 판사님의 저서 중 한 권인 「**無常을 넘어서**」를 내 아버님은 옆에 두시고 달도록 즐겨 읽으셨다. 무릎을 깊이 꿇어장례를 하시고 두 손은 합장으로 묵주기도, 삼종기도 등을 바치셨다. 아마도 대부님의 신심을 닮고자 하셨으니 우리 식구들도 덩달아 자랑스러웠다.

등산과 여행을 즐기시는 판사님의 정신세계는 고귀하시고 풍요로우셨다. 개신교 가정에서 자라시고 불교의 교리에도 해박하셨으며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즐겨 읽으시고, 그림으로 삶을 그리시며 육당 최남선을 만나 가톨릭에 귀의하시어 많은 저서를 남기셨다. 당신이 사형판결을 내린 죄수들에게 그럴게밖에 할 수 없었던 괴로움을, 편지로 몇 장씩 애절하게 피력하시는 구도자(求道者)며 실천하는 ‘**사도(使徒) 법관**’ 이셨다. 그분은 신앙을 중시한 빈자(貧者)들의 법관으로 직책상 사형선고를 내리지만 생명을 존중하신 사형폐지론자셨다.

매일 미사를 드리셨고 사직동 덕에서 저녁기도를 온 가족과 모여서 바치셨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골덴 바지 차림에 물감들인 군복을 입고 단무지가 반찬인 도시락을 지니고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 대법원에 출근하셨다. 법원 마크 달린 관용차는 물론 타지 않으셨다. 사형수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신앙으로 이끄셨으니, 그들을 위해 책을 사고 그 가족들을 돌보시며, 월급을 거의 쓰셨다. 어둡던 그 시절에는 모두들 궁핍했다. 반찬삼아 가난을 먹고 살던 시절이었다. 그럴지만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

던 **친정아버님을** 모신 사모님은 **친정에서 보내주신 쌀가마니까지 돌려보내시는 ‘가난의 영성’**인 판사님의 청렴결백이 힘겨우셨을 터. 하여 어린 8남매의 뒷바라지로 광주리장사를 시작하셨다. 사모님의 마음씨, 말씨, 맵씨, 솜씨는 성모님마냥 품위가 있으셨다.

사모님의 광주리는 북어, 마른오징어, 미역, 김, 멸치 등 건어물의 보물창고였다. 내 어머니는 마른반찬이 떨어질 때 쯤 되어서는 대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1965년 판사님께서 돌아가신 후 첫째 김정훈 베드로 아드님은 신학생이 되셨다. 그리고 아버님의 정신세계에 대한 흥미가 절절히 담겨 있는 산문집으로 「**산, 바람, 하느님 그리고 나**」를 쓰신다. 순수한 천성으로 예민하고 풍부한 감성을 지닌, 자연과 인간을 더 없이 사랑하셨던 부제님께서 오스트리아유학중 등반사고로 1977년, 서른의 나이에 요절하시니 이 가정의 인간적인 비운을 우리는 많이 애달파 했다.

우리 가톨릭의 위대한 사상가로는 조선 정조 때의 대학자 **정약용 요한**, 일제강점기의 **안중근 토마스**, 또 **김홍섭 바오로** 판사를 그 주인공으로 든다. 또 법조계 중진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는 사법부의 양심을 지킨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1887-1964)판사셨다. 둘째는 청렴과 양심의 상징 **김홍섭** 판사요, ‘대쪽 검사’로 이름난 **최대교**(1901~1992). 이 세 분을 “**법조 3성(法曹三聖)**”이라 칭했다.

소돔과 고모라시대에 버금가는 어지러운 이 시대. 정신적인 지도자 어르신들이 몇 분이라도 계신다면, 조금 더 사랑의 기쁨으로 샘솟을 듯. 우리는 아쉬워한다.*

* 회원의 글 *

하느님 감사합니다

김성자(아기 예수의 데레사)/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재속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5년을 돌아보면 나이 사십에 미국이라는 낯설고 험한 땅에 와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중에 가르멜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님의 '묵상 기도로 하느님과 만나는 길' 이라는 강론 테이프를 되풀이해서 들었던 것이 가르멜과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당시 지부장이신 박태용 신부님께서 LA에 맨발 가르멜 재속회를 창립하신다는 것을 알아 지원을 하게 되었고, 1999년 단순서약을 하고 2002년 5월에 종신서약을 하였습니다.

지원 당시에는 모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LA 바오로 성당에 있는 작은 경당에서 모임을 했으며, 초대 지도신부님으로 김영문 브루노 신부님께서 오시어 머무시던 알함브라에 있는 성녀 소화 데레사 성당으로 장소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성당의 지하에 있는 작은 방에서 옹기종기 얼굴을 맞대고 모여 앉아 월모임을 하며 가르멜 성인 성녀님들의 책을 공부하였던 일, 신부님과 함께 구역별로 나누어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성 요한의 일생' 을 연극으로 표현했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힘들었던 일은 2004년 3월 재의 수요일 다음 토요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몇 달을 꼼짝 못 하고 누워서 지내야 했던 때입니다. 재속회원들이 하루가 멀다 하며 저희 집을 방문하시어 기도해 주시고, 음식도 장만하시어 먹여 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가르멜 식구들이 한 분 한 분 기억이 납니다.

당시 지도 신부이신 양상룡 도미니코 신부님께서는 먼 곳에 있는 저희 집까지 오셔서 성체를 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아파서 누워 있는 동안에 삶에 쫓겨서 읽지 못한 가르멜 성인들의 책을 원 없이 읽으면서 사순절을 보내라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고로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성인 성녀님의 영성 서적을 읽던 중에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책을 읽으면 내가 마치 성녀님의 수련자가 된 듯 "작은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라는 성녀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우쳐 주셨던 일, 침묵과 잠심의 <삼위일체의 복녀 엘리사벳> 책을 읽으면서 " '하느님은 내 안에, 나는 하느님 안에' 이 표어가 가르멜에서의 생활 전부입니다" 라는 성녀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일, 예수의(사모) 데레사 성녀님의 좌우명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하느님만이 불변하시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라는 말씀을 항상 간직하였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에디트슈타인으로 분장한 필자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던 일은 2005년 10월 15일, 예수의(사모) 데레사 성녀님 대축일에 라하브라에서 미주 가르멜 수도원 축성식을 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축성 후 잔치 때에 신부님, 수사님 그리고 재속회원님들 앞에서 <에디트 슈타인> 성녀님 생애 연극 공연 준비를 하며 구역원들이 모여 대본을 만들고 연습을 하느라고 웃고 떠들어 대던 일들이 너무 기쁘게 기억이 됩니다. 밤낮으로 대본을 읽고 외우면서 “내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 하느님 계획에는 있었습시다. 하느님 눈으로 보면 우연한 일은 없고 모든 삶은 자잘한 일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계획의 섭리 속에 마련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모든 내용은 저에게 묵상거리가 되었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기억들을 하나둘씩 생생하게 떠올리며 어느덧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제 나이 칠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속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어렵고 힘들며 꺾은 일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저 자신을 정화 시켜 주시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셨으며, 영적으로 더 가까이 당신께 이끌어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5년이 지나는 오늘 하느님 앞에 저의 실질적인 삶은 아직도 부끄럽고 부족하고 멀지만,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저 또한 발 한 발 언젠가는 당신을 뵈올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요즈음 새로 들어오시는 젊은 지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르멜 성모님의 보호와 사랑이 우리 남가주 가르멜 재속회를 무척

사랑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열심한 노력과 투신으로 보답하여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길 기원해 봅니다.*



단순서약



종신서약



2021년 10월 구역모임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참사회

*범위: 제28장 해설: 거둠의 기술

1. 어떻게 자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데레사의 기도 교육에 있어서 거둠 기도는 구송기도와 순수 관상기도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중간 단계이다.

“거둠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에 익숙해지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가르침.” 성녀는 제목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약속했다. 1) 거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함, 2) 이 기도를 위한 가용 수단들, 3) 어떻게 이 기법에 익숙해질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이 기법을 훈련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교적인 기도에 있어서 “자신을 거둬들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적 타자(神的他者), 즉 그리스도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을 배제한 채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자신을 모든 것과 격리시킴으로써 황폐하게 만들 뿐이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교적인 기도란 ‘두 인격체 간의 일’이라는 점이다.

2. 근본적인 전제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심리적이면서 동시에 상당히 현실적인 말이다.

성녀는 거둠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의 시작 호명을 선호했다.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내 영혼, 내 생명의 하늘, 내 영(靈)으로부터 확장된 영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영혼의 작

은 하늘”이라고 말해야 함이 맞다.

성녀와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이가 염두에 뒤야 할 근본적인 전제는 성경이 인간의 내면을 “하느님이 거하시는 곳” 또는 “성령이 머무는 성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 즉 거기에 당신의 기쁨을 두고 계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깊은 감동에 젖곤 했다.

기도하는 이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을 뿐 아니라 경험을 통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녀는 “영혼이 기도 중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알려 주었다. “그분께서는 차츰차츰 그 영혼을 키워가면서 당신이 그 안에 자리를 잡으실 만큼 키워 놓으신 다음에야 그에게 알려 주십니다” (12절).

“여러분은 이 진리를 잘 깨치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상호 간의 현존(“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다”고 하는)은 상호 간의 친교(親交)를 향해 개방되어 하느님과 인간은 기도 중에 침묵과 말, 고독과 동반, 대담함과 겸손을 통해 상호 간의 친교를 점점 증진시켜 간다.

3. 자신을 거둬들이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데레사는 두 단계를 통해 대답을 시도했다(4~7절).

정의(4~5절)

“이러한 기도를 거둠이라 일컬음은 영

혼이 제 모든 능력을 거둬들여 자기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이어서 자신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헛갈리게 만드는 곳을 바라보지도 거기에 있지도 않도록” 우리의 외적 감각들을 내면으로 거둬들이는 것을 “습관화해야” (5절)한다고 가르쳤다.

자신을 거둬들임에 있어서 인간 인격의 각 부분들이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영혼은 모든 감각과 능력을 인격의 중심 안으로 불러 모아야 한다.

-영혼은 “하느님과 함께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성녀에게 있어서 기도의 본질은 “누가 누구와 함께 있는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거룩한 스승님께서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영혼을 가르치기 위해 오십니다.”

‘거둬들임’은 하느님과 영혼 상호 간의 현존을 일깨워 준다.

-무엇보다 인간은 거둬들임으로 인해 관상적인 고요 속으로 들어가며 거기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게 된다. 그분이 겪으신 수난,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신 복음이 그것이다. 동시에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 그리고 나의 모든 구원 역사가 밝히 드러난다.

유연한 이미지들의 홍수

성녀는 이러한 실마리들을 제시했다.

-거둬들임은 거의 “샘물을 마시는 데 이른 것” (5절)을 의미한다.

-거둬들임은 빠른 길이다. 그것은 “짧은 시간에 많이 걷는 것입니다”(상동).

-거둬들임은 바다에서 여행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마치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아서 약간의 순풍만으로도 며칠 만에 여행을 끝내게 됩니다” (6-8절).

-거둬들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바탕 놀이로 보기 때문에 영혼이 그 놀이터를 잠시 떠나는 것” (6절)이라 할 수 있다.

-거둬들임은 마치 벌들이 “꿀을 받으러” (7절) 벌통 안으로 날아들 듯 그렇게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거둬들임은 불꽃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 그 불꽃에 바람을 불어 모든 것을 불사르도록 사랑의 불을 붙이게 하는 것이다(8절).

-“강력한 성” (6절)의 이미지 또는 “금을 비롯해 갖가지 보석들로 만들어진 궁전” (9절)의 이미지이다.

4. 실천: 어떻게 이를 습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말해 보기로 합시다” (8절).

여기서는 단지 “우리 영혼의 하늘” (9-12절)이라고 하는 전제에 바탕을 두고 내면화의 방식에 대해 제시하는 것으로만 그쳤다.

다음은 성녀가 이 내면화 방식을 5단계로 도식화해서 묘사한 것이다.

1단계: “우리 안에 엄청난 부를 갖춘 궁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2단계: “우리 안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10절).

“이 궁전에는 위대한 임금님께서 계십니다...” (9절).

3단계: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 세계(감각 세계)를 없애려 함이 아니라 이를 두 번째 세계(영의 세계)로 집중시키기 위함이다.

4단계: 하느님의 작용에 민감해야 한다.

5단계: 거둬들임은 단순한 실천이 아니라 삶과 인격 전체를 요구한다. 능동적으로 “자신을 거둬들임”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거둬들임 기도는 보다 깊은 친교를 나누게 해 주는 관상기도, 자신을 더 깊이 봉헌하고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흠송하게 해 주는 초자연적 기도 형태로 발전해 간다. 이러한 기도는 기도하는 이의 인격에 있어서 핵심과 삶 전체를 요구한다.*

-가르멜 총서 3

“성녀 데레사와 함께하는 완덕의 길 묵상” 에서 발췌

* 회원의 글 *

금경축을 맞이하며

손금원(예수의 벨라지아)
서울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저의 일생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께 찬미와 흠송을 드립니다.

서약 50주년을 맞이하여 서약갱신을 할 때는 남다른 감회에 사로잡히며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 많은 세월 저를 지도해주셨던 가르멜의 모든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의 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비들을 넘어 가르멜의 성모님께서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저를 지켜 주셨습니다. 월모임에서 신부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한 달 한 달 되새기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세월들이 쌓여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금경축을 맞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살아왔는지 가르멜의 울타리 안에서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닌지 저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

명한 것은 제가 금경축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가르멜 안에서 살아왔기에 가능한 일이지 저의 공덕은 아닙니다. 정결 가난 순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결과는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가르멜 안에서 회원들과 같이 했던 삶과 나누었던 사랑은 지금도 제게 살아가는 버팀목이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순명의 길 안에 주님과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면 금경축은 제가 축하 받을 일이 아니라 가르멜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이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여러분과 기뻐할 일입니다. 이제 저는 제게 남은 시간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흠송하고 찬미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구절을 되새기며 저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사랑받고 싶은 열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느님과 우리 공동체 모든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23일



수도회 소식

가르멜 영성 특강 안내

일시	강의 주제	강사
8월 13일	십자가 성 요한 영성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욕' 과 '육체적 감각들' 에 대한 정화와 합일의 두 차원에서의 이해	김광서 토마스 수사
9월 10일	소화 성녀 데레사의 믿음의 시련	신호준 마리오 수사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8월만 1층 강당에서 합니다.)
- 시간: 강연 13:40 /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 접수 방법: 문자 사전접수 010-4149-1853 (신청양식: 영성특강/이름/세례명/연락처/본당)
-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무료 강연입니다.
-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참여를 위하여, 오시는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특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르멜수도회 젊은이 피정 프로그램 안내

	장소	일시	대상
서울 청년피정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3층 경당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00-3:30	20-40세 청년 (기혼/미혼 무관, 신자/비신자 무관)
광주 젊은이 피정	가르멜 광주 수도원	매월 첫째 토-일	고등학생 이상(남자)

* 문의: 010-2140-7414

성시간:

- 매월 마지막 주(토) 오후 3시~ 4시 30분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오후 2시 30분부터 개방)
- 영성강좌, 성시간, 미사

날짜	8월 28일
주제	가르멜 영성에서의 자아인식
지도	김광서 토마스 수사

첫토요 신심 미사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 매월 첫 토요일 10시 30분

수련착복

7월 15일, 네 분의 수사님(십자가의 요한, 바오로, 마리 라파엘, 암브로시오)이 수련착복을 하였습니다. 수사님들이 성모님의 보호 아래 수련을 잘 받으시고 가르멜 수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허선형 마리 도미니코 사비오 수사님 귀국
로마에서 유학 중이던 마리 도미니코 사비오 수사님이 7월 11일 귀국하였습니다. 수사님께서서는 광주 수도원에 머무시면서 부제 직무를 수행하실 것입니다. 마리 도미니코 사비오 수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르멜 세계총회 개최

이탈리아 로마에서 8월 29일 - 9월 15일 까지 가르멜 세계총회가 개최됩니다. 이 총회에서 총장님과 평의원들을 선출합니다. 한국 가르멜 수도회에서는 김형신 이냐시오 관구장 수사님과 이인섭 필립보네리 수사님이 수도회 대표로 총회에 참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아래 세계총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한국에서 참

석하시는 두 수사님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보규(가브리엘)/신호준(마리오) 2인 전시회

주제: '기억'

일시: 2021년 8월 25일(수) ~ 31일(화) 오전10시~저녁6시
(* 25일(수) 오후 4시 오픈식/ 31일(화)은 오전까지만 관람)

장소: gallery 1898 (명동성당 지하)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미사신청: 우리 1005-402-642675,

* 미사지향은 문자 바람

(010-6305-5088 권영상 클레멘스)

가르멜수도회 후원회:우리 1005-203-133071

농협 301- 0162-097461

중국선교 후원회:우리 1005-502-535564

성소 후원회:우리 1005-302-535558

홈페이지: [http:// www.carmel.kr](http://www.carmel.kr)

유튜브: 가르멜 수도회

앱: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재속회 소식

관구 양성책임자 교육

7회기 관구 양성책임자 교육이 전국 공동체를 대상으로 7월 1-3일, 10-12일, 19-21일 세차례에 걸쳐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2박 3일간 이루어진 교육은 미사, 다섯 개의 강좌, 나눔 등으로 이루어졌고,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공동체는 2차교육부터 비대면으로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교육에 참여한 양성책임자들은 녹화되는 신부님들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그룹콜로 나눔을 하였습니다. 1강의는 양성 교수법 및 교안 작성(서봉교 예로니모 신부님), 2강의는 양성책임자의 자질(이인섭 필립보네리 신부님), 3강의는 식별(김영문 브루노 신부님), 4강의

는 인성적 양성(김형신 이냐시오 신부님), 5강의는 양성의 목적과 방향(강민기 세라피노 신부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풍부한 강의 내용으로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신 신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신서약

* 서울 성 엘리야 공동체



- 날짜: 2021년 5월 13일
- 회원: 신일식 예수의 글라라

* 서울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 공동체



- 날짜: 2021년 5월 20일
- 회원: 정태영 예수성심의 베로니카
김윤정 승리의십자가의 아녜스

* 고성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



- 날짜: 2021년 6월 21일
- 회원: 마해숙 어머니마리아의 율리아나

금경축

- *서울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날짜: 2021년 6월 23일
- 회원: 손금원 예수의 벨라지아



손금원 예수의 벨라지아
(금경축)

은경축

- *서울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 날짜: 2021년 6월 16일
- 회원: 김영선 예수성심의 레지나
박노춘 성면의 베로니카
송혜경 가르멜산성모의 알비나
정행순 겸손의 제노베파



서울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 *마산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 날짜: 2021년 6월 21일
- 회원: 배승희 요셉의 아가다
심영래 예수십자가의 수산나
이현숙 예수의 로사리아
김성혜 성모성심의 제노베파



마산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 *서울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 공동체
- 날짜: 2021년 6월 21일
- 회원: 함미자 성모성심의 나사라



서울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 공동체

- *서울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날짜: 2021년 6월 23일
- 회원: 이성희 성면의 베로니카
박종숙 예수성심의 에메란시아
이순영 아기예수의 아녜스
우태섭 성모성심의 로사
송혜정 가르멜성모의 벨라지아



서울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금경축, 은경축



정돈된 질서를 위해 인간힘을 쓰는 그대여,
창조적 자연의 이치가 초대하는
혼돈과 파격의 길을 걸어보라.

낮선 두려움
우리의 의식 저편에
꽃을 피우는 사랑,
그 돌봄의 섭리가 있다.

- Jean J de C -